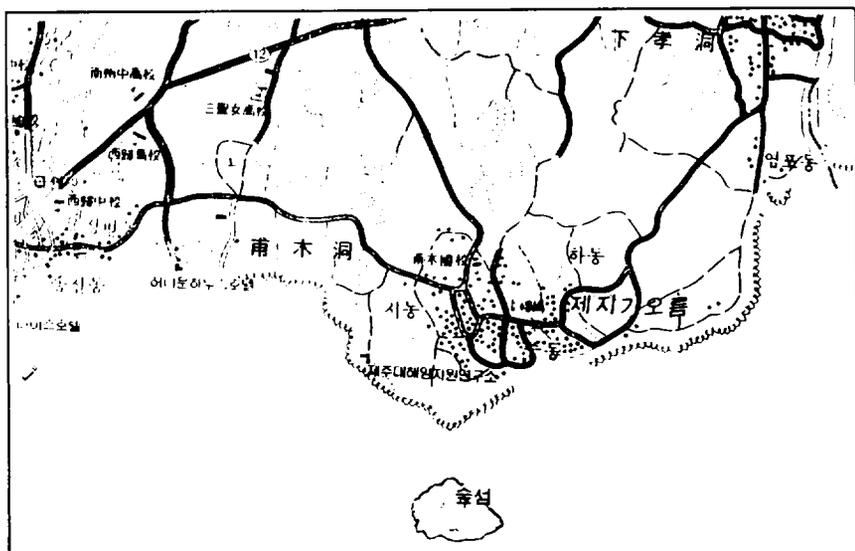


濟州道 西歸浦市 甫木里 (甫木洞)

現地學術調查報告

(1991.8.3~1991.8.6)



學術調查經緯

국어교육과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현지 학술조사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응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겸비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실시되는 현지 학술조사는 현지의 방언, 설화, 민요, 신앙 등의 분야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국어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또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통하여 협동심을 기르게 한다는 목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실시하여 왔다.

지금까지 학술조사를 벌인 곳은 ①南濟州郡 성산읍 난산리(1976. 8), ②南濟州郡 표선면 성읍리(1977. 7), ③北濟州郡 애월읍 남읍리(1978. 8), ④南濟州郡 안덕면 덕수리(1981. 7), ⑤北濟州郡 애월읍 광령리(1983. 8), ⑥北濟州郡 한림읍 명월리(1984. 8), ⑦南濟州郡 안덕면 대평리(1985. 8), ⑧南濟州郡 성산읍 은평리(1986. 7), ⑨南濟州郡 남원읍 하례리(1987. 8), ⑩北濟州郡 구좌읍 김녕리(1988. 7), ⑪北濟州郡 한경면 고산리(1989. 7), ⑫北濟州郡 추자면(1990. 7) 등이다.

제13회 현지 학술조사는 1991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3박4일간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실시하였다.

보목리는 무속신앙뿐 아니라 원, 테우 등 어로관습을 포함한 고유의 풍습이 많이 보존되어 있으나(1983년, 안동에서 열린 24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테우만 드는 노래」로 입상하기도 했다.), 도회지인 서귀포시가지와 가까운 탓으로 이러한 것들이 급속하게 본래 모습을 잃어 가고 있는 마을이다. 이 곳을 조사지로 선정한 이유는 이처럼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조사해 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미 소설가 吳成贊씨 등에 의해서 「제주의 마을」시리즈 11: 甫木里」(도서출판 반석, 1991)로 조사 결과가 출간된 바 있으나, 우리가 관

學術調查經緯

심을 가지고 있는 說話, 民謠, 巫歌(信仰) 등 口碑文學과 方言에 대한 조사결과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에 앞서 기존 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가능한 대로 도움을 얻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좀더 발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 학술조사단에서는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준비단계로 교통편, 숙식, 취사문제의 해결과 마을 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전답사 자료집은 마을 현황을 비롯한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자들에게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현지조사에는 학과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동문 선배들이 참여하였다. 지도는 양중해, 윤석산(民謠), 현용준(信仰), 최규일, 김태곤(方言), 문성숙, 안성수(說話) 교수님이 해 주셨고, 조사반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운영하였다(괄호 안은 학년).

方 言 : 김종철 (3), 문정순 (2), 문성요 (1), 김경옥 (1), 양지연 (1), 송은숙 (1)

說 話 : 현경미 (3), 김진희 (3), 강정실 (2), 이정숙 (2), 임윤정 (1), 이수환 (1), 김정옥 (1), 양현아 (1)

民 謠 : 강필애 (3), 강인영 (3), 빈성희 (3), 김정옥 (2), 강성희 (2), 교육재 (1), 정경숙 (1), 현순영 (1)

信 仰 : 강철수 (4), 김형미 (3), 문경희 (3), 김미경 (3), 부현주 (2), 이운선 (2), 고지연 (1), 오순영 (1), 허미랑 (1), 이동임 (1)

재학생 이외에도 현승환, 김경찬, 오동식, 장훈, 원방필, 오영근 선생님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셨고, 백운주, 양영길, 김순두, 강두전, 문덕찬 선생님 등 여러분이 도움을 주셨다.

3박4일간의 학술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8월 3일) : 오전 10시 학교에서 인원과 장비를 점검하고, 조사지를 향

하여 출발 12시에 보목국민학교에 도착하였다. 숙소를 정리하고 마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반별 답사를 겸한 1차 조사활동을 폈다.

제2일(8월 4일) : 첫날의 1차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제3일(8월 5일) :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반장모임을 통해 점검한 후, 반별 조사활동을 계속했다. 조사내용에 대한 전체 토론과 반별 자체 평가를 가졌다.

제4일(8월 6일) : 미비한 조사를 보충하여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평가회를 가졌다.

3박4일간의 조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마을 주민 여러분과 보목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참여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도해주신 선배님들께 고마운 뜻을 전한다.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도교수님들과 원고정리에 수고가 많았던 각 조사반 반장과 반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을개황

목 차

- I. 자연환경
- II. 역사적 배경
- III. 인문개황
- IV. 산업구조

I. 자연환경

보목동은 서귀포시 중심부에서부터 동쪽으로 4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반농반어촌이다. 마을 중심에서 볼 때 동쪽으로는 제지기 오름, 서남쪽 바다 한가운데는 섭섬, 서쪽으로는 서귀포 시가지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한라산이 멀찍이 앉아 있다.

위도상으로는 동경 126° 37' 북위 33° 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361.7ha이다. 온도는 연평균 15.7°C이며, 강수량은 국내최고인 연평균 1,500mm~2,200mm나 된다.

토질은 온통 화산회토로 뒤덮인 산성토양이어서 곡식 농사에는 부적합하다. 그나마 잡곡재배가 가능했던 땅이라고는 제지기오름 북쪽의 속칭 '가막곶'과 서귀포시내에서 보목동으로 들어오는 길목 주위의 속칭 '질난밭'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테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듬북'

이라는 해초를 캐다가 밭에 덮어 거름으로 삼아야 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서는 거의 1년 내내 해초 채취를 위해 바다에 나가야 했던 때도 있었다 한다. 그러나, 화학비료가 나오면서 이러한 고생은 면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굴농사들 시작하면서부터는 척박한 토질이 거의 문제되지 않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마을에는 포구가 넷이나 있는데, 마을의 규모로 보아 이는 매우 많은 숫자이다. 이처럼 포구가 많은 것을 보아 이 마을이 얼마나 바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토질이 척박한 만큼 농사일 대신에 바다일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을 앞바다에 있는 섬섬은 한자로는 '森島'로 표기되는 무인도이다. 마을 해안으로부터 0.45km 떨어져 있는데, 이는 소형 어선으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 그 면적은 0.142km²이다. 바다 한가운데 깎아지른 듯한 바위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상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으나, 해식작용으로 인하여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암벽과, 벼랑을 제외한 섬 전체를 덮고 있는 질푸른 난대림이 서귀포의 해안풍치를 돋구어 주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섬이다.

이 섬에는 옛날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아귀나무, 녹나무, 호자나무, 북가시리나무, 종가시나무, 덩굴볼래나무 등 10여종의 상록수가 사철 무성하여 상록활엽수림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 자생하는 식물은 약 450여종을 헤아린다.

이 섬은 특히 파초일엽 자생지로 유명하다. 파초일엽은 일명 넓고사리라고 하는 아열대성 상록양치식물이다. 섬섬은 넓고사리 분포의 북방한계선이며, 그래서 넓고사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섬을 형성한 암질은 제주도 화산활동 초기에 분출한 조면암류에 속하는 삼도용암으로서 지질학적으로 중시되고 있으며, 희귀한 식물상을 관찰할 수 있어서 생물학적으로도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

이 섬에 대하여 이원조는 「탐라지초본」권4 도서조에 '석벽이 높고 험하여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우며 위에는 대나무가 많다...' (石壁高險 人跡難通 上多篔簹竹...)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II. 역사적 배경

최근에 보목리 마을 동북쪽에 위치한 慧觀精舍 앞밭에서 발견된 지금으로부터 2천년전 경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무문토기 파편으로 보아, 보목리 마을에는 이미 원삼국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었음이 확인되었다(이 무문토기 파편이 발굴된 곳에서 또 고려시대 것으로 보이는 석관묘의 돌널들이 독으로 쌓여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이 발견된 곳은 바로 보목리 사람들이 처음 설촌하여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고막곶'과 2~3백미터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깝다는 점이 구전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구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인 1680년경에 속칭 '고막곶'이라는 곳에 白氏와 趙氏가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이 보목동의 시초라 한다. 그러나 이곳은 식수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많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곧 폐촌되고 말았다고 구전되고 있다. 그 후에는 현재 보목동에 남아 있지 않으나, '백밭', '조개우녕' 등 관련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성씨가 설촌하였다는 구전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다시 이 마을 사람이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약 270여년전인 1715년경 濟州 韓氏 致貞公의 입주였다 한다. 그 뒤를 이어 梁氏, 康氏, 李氏 등이 차례로 이주 정착함으로써 지금과 거의 같은 크기로 마을이 확장되었다.

조선시대인 1800년대 제주지도에는 보목리 주변 마을을 '浦南村'이라 표기한 경우가 보이며, 「南槎錄」 등 일부 기록에 의하면 이 마을의 이름을 '浦涯木浦'라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 마을의 과거 속칭인 '불래낭개'를 음훈차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래낭개'라고 하는 속칭은 이 마을에 '불래낭'이라고 하는 보리수가 많이 자생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풀이하고 있다.

旌義縣의 한 마을이던 보목 마을은 1915년 島制가 실시되면서 濟州島 右面

甫木里로 개편되었으며, 1935년에는 西歸面 甫木里로 바뀌었다. 1958년에는 서귀면이 西歸邑으로 승격되면서 西歸邑 甫木里로 따라 바뀌었다.

그러던 것이, 1981년 西歸浦의 市 승격에 따라 松山洞의 8,9,10,11통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송산동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甫木洞'은 법정동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우편번호도 따로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Ⅲ. 인문 개황

보목동에는 704세대 2,698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는 송산동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한다. 704세대 중 절반 정도인 360여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상업 등 여러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몇 세대가 어떤 산업을 생업으로 삼는지는 조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보목동은 독립행정 단위가 아니라 송산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보목동만의 통계자료가 따로 조사되어 있지 않고, 마을 자체의 조사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존자료의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미비한 자료가 많은 흠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표1) 보목동 인구

계	남	여	세 대 수
2,698명	1,356명	1,342명	704세대

(1991. 8. 3현재, 송산동사무소 제공)

성씨별로는 한씨, 강씨, 양씨, 김씨, 이씨, 현씨 등이 6개 성씨가 568세대로 나머지 33개 성씨를 합한 136세대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로 보아 이 마을이 이들 6개 성씨의 집성촌임을 알 수 있다.

마을 개황

〈표2〉 가호별 성씨 분포

성 씨	韓	康	梁	金	李	玄	高	許	洪	鄭·吳
세대수	186	102	84	73	69	54	27	12	9	각 8
성 씨	姜·朴 趙	文·宋	尹·張	俞·崔	白·徐 安·元	權·羅·孫·申·禹·劉·任·林·全	權·羅·孫·申·禹·劉·任·林·全	權·羅·孫·申·禹·劉·任·林·全	權·羅·孫·申·禹·劉·任·林·全	權·羅·孫·申·禹·劉·任·林·全
세대수	각 6	각 5	각 4	각 3	각 2	각 1				

(1991. 8. 3현재, 송산동사무소 제공)

이 마을 주민의 호당 소득은 9,3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고소득은 주로 감귤재배로 얻는 것이다. 이 지역의 다른 마을도 같은 사정이지만, 주민들 상당수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옥을 새로 단장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꾸미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차량보유현황

(단위: 대)

계	승 합 차 (버스포함)	승 용 차	화 물 차	중 기
183	12	75	96	0

그러나, 마을의 규모가 작은 탓으로 교육시설은 보목국민학교 1개소뿐이며,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서귀포 시내 학교로 가야하는 실정이다.

〈표4〉 학생현황

(단위: 명)

성별	학년	1	2	3	4	5	6	계
	남	24	23	24	30	20	24	145
여	19	17	24	22	27	23	132	
계	43	40	48	52	47	47	277	

(1991. 7현재, 보목국민학교 제공)

부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주민 중에 외지인에게 부동산을 팔아 넘긴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외지인을 위한 현대식 빌라와 아파트가 건설되어 마을의 전통적인 면모를 퇴색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빌라와 아파트 등은 외지인 여행객의 숙박시설이나 별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외지인의 별장 신축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많은 외지인이 드나들게 되면서, 차량통행이 빈번해져 좁은 도로의 확장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V. 산업구조

척박한 토지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이러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바다를 개척하는 삶을 살아 가던 선조들과는 달리, 감귤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점차 감귤농사가 경제성이 떨어지자, 대체작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였다. 처음에 시작한 대체작물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바나나 재배였다. 그러나, 처음 바나나 농사를 시작할 때 12만평에 이르던 것이 수입 개방으로 인한 타격 때문에 그 면적이 격감했으며, 현재는 시설농가의 약 20-30%가 시설감귤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파인애플, 화훼 등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많은 농사자금이 유통되게 되면서, 1971년 9월에는 이 마을에도 신용협동조합이 들어섰으며, 1991년 3월에는 농협분소가 업무를 개시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현재 동민조합원이 800여명, 예금실적은 30억에 이르고 있으며, 농약, 비료, 하우스용 비닐 등도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취급하면서 연간매출액 7억을 기록하고 있어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개황

〈표5〉 토지 이용 현황

(단위 : m²)

계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학교
3,618,308	1,188,441	24,324	1,272,478	538,699	212,888	11,263
도로	하천	주거	수도	묘지	기타	
212,442	81,779	198	66	70,673	5,049	

해녀는 하루 평균 4만원 소득을 올리며, 연평균 3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과수원이 적은 사람, 경제적으로 상대적 빈곤 집안에서 해녀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인구중의 해녀수는 2%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음은 서귀포 수협에서 파악한 해녀 현황이다.

〈표6〉 해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연령	계	30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인원	126	0	16	35	44	25	6

(1991. 8현재, 서귀포수협 제공)

위 표에서 보듯이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0세 미만의 젊은 층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해녀가 격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외지인이 양식장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피해를 예상치 못하고 동의해 주었는데, 현재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 어민이 보유하고 있는 배는 10척으로 대개 5-6톤되는 소형 어선이어서 대단히 영세한 형편이다.

方 言

目 次

I. 대동적 연결어미

1. -곡/-고

2. -명

3. -주만/-주마는

II. 종속적 연결어미

1. -난/-나네

2. -민/-른

3. -(아/어) + ㅇ/으네/그네/네/니

4. -당/-당으네/-다그네

5. 그 외의 것

지금까지 우리 학술조사의 방언조사는 대부분 어휘와 지명에 대한 조사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번 보목리 방언조사는 주로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제주방언에서 한 문장을 다른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어미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분류하고, 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¹⁾

3박 4일 동안 여러 제보자들을 만나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결어미들을 찾아 내었다. 어떤 연결어미의 형태가 있나 없나를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유도해 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여기에 수록된 것들이 제주 방언 연결어미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1) 연결어미의 기능을 살피고 이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남기십·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탑출판사, 1987)을 참고하였다.

아니다.

또한, 조사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각 연결어미의 기능이나, 형태의 기본형, 그로부터의 변화과정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탐구하지 못한 것도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표피적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연결어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술조사의 방언조사와는 조금 다른 시도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제주 방언의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표준어도 적어 놓았다.

표기는 분철을 원칙으로 하였고, 옮기기 어려운 것은 제보자의 발음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다.

I. 대등적 연결어미²⁾

1. -곡/-고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나열하거나,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이을 때 쓰이고 있다. 이 두가지는 특정 조건하에서 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두루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곡'이 더 우세하게 쓰였다. 표준어 '-고'에 해당한다.

① -곡

갈옷 입었 들에 강 일허영 오랑 벗어두곡 곤 옷을 곱아 입는 거라(갈옷 입고 들에 가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옷을) 벗어두고, 고운 옷으로 갈아 입는 것이다.).

새로 만든 꿀로 막개로 두드리멍 고망 돌랑, 못 박을 된 못 박곡 사꺼로 묶을 된 사꺼로 짚곡 남 겨울 된 남 겨왕 터우 지섰주(쇠로 만든 꿀을 막개

2) 연결어미는 일반적으로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뉜다.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조사된 자료만을 가지고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추출하여 보았다.

로 두드리며 구멍을 뚫어서, 못 박을 곳에는 못을 박고 새끼줄로 묶을 곳은 묶고 나무를 끼울 곳은 나무를 끼워 테우를 만들었지.).

돼지질랑 것에 새끼 내오곡 강아지도 질락나곡, 질룬다 현 건 다 질락나서(돼지를 길러 그것에 새끼를 낳게하고 강아지도 길렀었고, 기른다는 것은 모두 길렀었지.).

물에 아니 들어감 잡는 건, 물싸민 고매기도 잡곡, 조게도 잡곡, 키, 성귀, 솜7튼 거 그런 거때끼 못잡주(물에 들어가지 않고 잡는 것은, 물이 나면 고매기도 잡고 조개도 잡고, 키, 성계, 해삼같은 것들 그런 것밖에는 잡지 못한다.).

② -고

이 솟된 밤허고 요 솟된 국행주 경 고라났주(이 술에는 밤을 하고 요 술에는 국을 한다고 말했었지.).

2.-멍

이것은 한 가지 이상의 일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표준어 ‘-며, -면서’에 해당한다.

영허영³⁾ 박⁴⁾ 홀트곡 허멍, 홀탕으네 영현 방멍이 아저강 방멍이로 두드렁으네 마다리에 담았주(이렇게 해서 홀으면서, 홀어서 이런 방망이 가지고가 두드려서 가마니에 담았지.).

든물나민 썰물 나는 되로 들영 들물 나는 되로 가멍 잡곡. 또 썰물나민 썰물나는 되로 가멍 잡곡, 경행 허민 배로 강 시꺼오곡(밀물이면 썰물인 쪽으로 들어가 물이 드는 쪽으로 가면서 잡고, 또 썰물이면 물이 썰물나는 쪽으로 가면서 잡고, 그렇게 하면 배로 가서 실어오고).

3) 행위를 하면서 제보자가 설명했다.

4) 잡아다니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아기 홍글멍 노래하는 거, 건 잘 몰르켜(아기를 흔들면서 노래부르는 것, 그것은 잘 모르겠다.).

3. -주만 / -주마는

앞과 뒤 또는 어떤 두 일이 서로 상반됨을 나타낸다. 이는 표준어 '-지만'에 해당한다.

① -주만

문 안 먹겼주만 얼지 안허다(문은 닫지 않았지만, 춥지 않다.)

감남사 섯주만 선 댜 아니 타먹어나서(감나무야 있었지만, 댜 익었을 댜는 따먹지 않았다.).

② -주마는

보리앗디사 혼자 안맨다. 이녀 거야 훑썰 허주마는. 문 보리 아저갈 걸로 오락 검질 매 준다. 또 보리 앓당 먹은 사람덜 허곡(보리밭이야 (김을) 혼자 매지 않는다. 자기 것은 조금 하지만 모두 보리 가져갈 것으로 와서 김을 매 준다. 또 보리 가져다 먹은 사람들 하고.).

나가 한걸해시민 수늘주마는 난 일 수늘아보진 안했져. 일 수늘 저르가 엇주게(내가 한가했으면 수늘지만⁵⁾ 나는 수늘아보지는 않았다. 일을 수늘 겨를이 없지.).

우린 연날 해난 양 안허주마는 해너덜 이제도 잘 허여(우리는 옛날 했었던 후에는 하지 않지만 해너들은 지금도 잘 한다.).

-
- 5) 제주도에는 아기구덕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기를 여기에 눕혀 키웠다 함. 여기서 '아기 흔들면서'라는 것은 '아기를 아기구덕에 눕히고 그것을 흔들면서'라는 뜻이다.
- 6) 수늘음, 파종시나 수확시에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일종의 품앗이 형태이다.

II. 종속적 연결어미

1. -난/-나네

어떠한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표준어 '-니/-니까'에 해당한다.

① -난

여기도 왕 보난 여기나 저기나 ㄹ따(여기도 와서 보니 여기나 저기나 같다.).

는 곤 옷 입었져. 어디 시난 입언디?(너는 고운 옷을 입었구나. 어디 있으니까 입었니?)

난 영 아지난 동무들 아프다(나는 이렇게 앓으니 무릎이 아프다.).

요샌 다 밀감 심거노난 어디 농서홀 되가 이서계(요새는 모두 감귤나무를 심으니 어디 농사지을 곳이 있느냐.).

문 요라부난 비 들이뻬엿져." 문 먹거불라(문을 여니 비가 들어온다. 문을 달아라.).

나도 종애 아팜 어디 땡기지 못허는게, 이디 오란 일해나부난 이거주(나도 장딴지 아파서 어디 다니지 못하는 것이, 여기 와서 일했었으니 이렇게 됐지.).

② -나네

보리 조 ㄱ단 밀감낭 심금 시작^한 거시기 텅진 낭, 텅진 낭 가시 신 거, 그거 해당 심거네. 또 그것에 밀감낭 순 해당 점부치나네 그거 커가난 ㄱ 5년생이나 되가사 ㄱ연시작 ㄱ여(보리 조를 하다가 감귤나무를 심기 시작

7) 들이뻬다. 비가 세차게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킨다.

方 言

하니 탱자나무, 가시가 있는 것, 그것을 해다가 심어서 또 그것에 감귤나무
순을 해다가 접붙이니 그것이 자라서 한 5년생이나 되어 열기 시작하지.).

-매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특이한 형태로 '-매'가 쓰인 것이 있었
다. 아래 쓰인 '-어시매'는 '-었으니까'를 뜻한다.

호미로 낀 비어시매 호미랑 놔볼라(호미로 모두 베었으니까 호미
는 놔버려라.).

2. -민/-은

어떠한 상황이나 일의 조건을 나타낸다. 이는 표준어 '-면'에 해당한다. 여
기서 이 두가지는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두루
쓰이고 있어 발음상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① -민

옷 하영 입으민 더운디 무사 경 하영 입언디?(옷을 많이 입으면 더운데,
왜 그렇게 많이 입었나?)

감님이 성 아이들이라도 타먹어가민, 거 익거들랑 타먹주 무사 선 때 타
먹언디?(감나무가 있어서 아이들이라도 따먹으면, 익거든 따먹지 왜 설익
은 때 따먹느냐?)

손지 자는 방에 불을 싸놔시민 불 끼왕 자라 경 해났주(손자가 자는 방에
불을 켜놔으면, 불을 끄고 자거라 그렇게 했었지.).

똥줄래 이시민 난 똥스왕 득라나분다. 뱀 사름 바지민 막 좃음만 합니다
(물뱀이 있으면 나는 무서워서 달아나 버린다. 뱀은 사람이 보이면 마구 좃
기만 합니다.).

남 강알에 아지민 시원허주. 남 강알에 아지민 무시거허여. 검질 매당 지 치난 누왕 좁자주 무시거 허여?(나무 아래에 앉으면 시원하지. 나무 아래 앉으면 무엇을 해. 김을 매다 힘에 겨우니까 누워 자지 무얼 하겠느냐?)

감제를 허민 밧이 죽아도 다 좋은 밧되만 현고라 나가 일등해라(고구마를 하면 밧이 작아도 다 좋은 밧에만 했는지 내가 일등하곤 하대.).

② -문

남자 이신디서 옷 버성 입겐 허문 비끄러완 돈 방에 감젠허주(남자가 있는 곳에서 옷을 갈아 입으려면 부끄러워서 다른 방에 간다고 하지.).

곡식덜 거두어들이겐 허른 감자 파져 조 허저 얼만 바쁘느니. 영 놀 저물이 이시나. 가그네 감저영 파그네 문딱 풀주게(곡식들을 수확하려면 고구마 파지 조 농사 짓지 얼마나 바쁘겠느냐. 이렇게 놀고 있을 겨물이 있느냐. 가서 고구마랑 파서 모두 팔지.).

어멍허영 질러게? 옛날엔 초집에 사난 마당에 검질 풀주게. 뚝허영 푸왕 내불른 주시레기덜 쪼어 먹으멍 푸농 질러났주. 보리 좁쌀 뼈영 내불른 쪼어 먹곡, 뭐 벌거지도 먹곡 그자 왕만 내불른 가두지 안헌 거난 아무거라도 쪼어 먹으멍 커(어떻게 해서 길르기는? 옛날에는 초가집에 살았으니 마당에 풀'을 깔지. 닭해서 풀어 놓아두면 찌꺼기를 쪼어 먹으면서 놓아 길렀었지. 보리 좁쌀 뿌려 놓아두면 주워 먹고, 벌레들도 먹고 그저 놓아두면 가두지 않은 것이니 무엇이든지 주어 먹으면서 크지.).

3. -(아/어) + ○/○으네/그네/네/L⁹⁾

- 8) 초가집 마당에는 대부분 보리짚이나 조짚, 풀 등을 베어다가 깔았다.
- 9) 대체적으로 양성모음 뒤에는 '안', 음성모음 뒤에는 '영'이 오며, '오'은 '아', '어'가 동일한 모음 아래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위를 나타내는 '-하다'(현재는 대부분 '허다'로 발음) 뒤에서는 '허영'이나 '행'으로 발음되고 있었다. 나머지 형태도 모음조화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方 言

어떤 일의 결과 그렇게 됨을 나타내거나, 어떠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표준어 '-서'에 해당한다.

① -앙 / -엉 / -ㅇ

정술내 내창에 강 쉐 물 맥이주. 내창에 강 영 골른 물 시른 쉐 맥여. 저피 산에도 가민 물골른 되 시주. 고망속으로 요멘씩 작박 드리물앙 물 멍 먹어났주 (정술내에 가서 소에게 물을 먹이지. 내애 가서 이렇게 고인 물이 있으면 소를 먹여. 저기 산에도 가면 물 고인 데가 있지. 구멍 속으로 이만 큼씩 박아지를 넣어서 물을 떠 먹었었지.).

미명으로 맨들앙 감물들이는 저주. 그때 다른 거 무신 거 시느니? (무명으로 만들어서 감물을 들이는 거지.)" 그 때는 다른 무엇이 있겠니?)

보리에 쌀 혼직 놓 밥허민 그것이 반지기밥이라(보리에 쌀을 한줌 놓아서 밥을 하면 그것이 반지기밥이다.).

돛줄래 이시민 난 모스왕 두라나분다(물뱀이 있으면 나는 무서워서 달아나 버린다.).

고기 쏠 때엔 소살 만들앙 질렁 땡기당 고기 봐지민 그거 배영 고기도 쥘 르꼭(고기를 쏠 때는 작살을 만들어서 끼우고 다니다가 고기 보이면 그것을 빼서 고기도 쥘르꼬.).

② -앙으네 / -엉으네 / -ㅇ으네

저기 강으네 돈 촌자오라(저기 가서 돈 찾아오너라.).

10) 무명에 감물을 들인 옷을 갈옷이라 한다. 이는 농사일을 하는 작업복으로 주로 쓰였다.

게난 거기서 출행으네 늘었당 세 주고 경허영 세 질러났주 (그러니까 그곳에서 끈을 해서 쌈았다가 소 주고, 그렇게해서 소를 길렀었지.).

조는 왓말이 브디난 거기서 몬 툰앙으네 마다리에 담앙 집의 오랑으네 두 드리주 (조는 밭들이 가까우니, 거기서 (이삭을) 모두 뜯어서 가마니에 담고 집에 와서 두드리지.).

③ -아그네 / -어그네

옛날엔 풍선이주게, 풍선해그네 노를 저시명 가그네 거기강 물질허영 들어 오곡 (옛날에는 풍선이지. 풍선해서 노를 저으며 가서, 그곳에 가서 물 질¹¹⁾해서 (물으로) 들어오고.).

나무 그차나 민 아래 요만 씩헌 불리 가 씩은 눔이 있주게. 나대 아저 강 몬 다 사 그네 멩테 기에 담앙 오라 그네 쌌 당 깃 곡, 옛날 에 살림 이사 그 거 사 는 디 게 죽 지 안 허 몬 살림 살 곡 허 허 허 (나무 를 자 른 후 면 은 (나무) 아 래 에 요 만 큼 씩 한 뿌 리 씩 은 게 있 지. 나 대 를 가 져 가 서 모 두 부 러 뜨 려 서 망 태 기 에 담 고 와 서 두 었 다 가 지 피 고, 옛 날 에 살 림 이 야 사 는 데 죽 지 않 으면 살 림 을 살 고 허 허 허.).

미 녕 웃 에 도 깨 끗 허 게 물 앙 플 해 그 네 방 맹 이 로 다 듬 아 그 네 그 런 거 입 었 주 (무 명 웃 을 깨 끗 이 탈 아 플 질 을 해 서 망 망 이 로 다 듬 어 서 는 그 것 것 을 입 었 지.).

④ -아네 / -어네

할 망 은 열 네 살 에 시 집 오 라 네 왕 보 나 네 (할 머 니 는 열 네 살 에 시 집 을 와 서 보 니 까.).

11) 해녀가 물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물질한다고 했다.

경 숨막 이서네 몬 알러레 내려점시네 (그렇게 가득 있어서 모두 아래로 떨어지잖니.).

⑤ -ㄴ

용심나냐? 무사 말 안골압디. 무사, 굴뚝부런¹²⁾ 말 안골압시? (화 났느냐?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왜, 심통부리면서 말을 하지 않느냐?)

4. -당 / -당으네 / -다그네

어떤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바뀌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표준어 '-다 / -다가'에 해당한다.

① -당

무거운 거 들렀당 놔볼민 손이 좋주게 (무거운 것을 들었다가 놓으면 손이 가뿐하지.).

보릴 초불만 끝아다가 그놈 물 켰당 시루에 청영으네 느양 영 명석에 폐 왕으네 명석을 던영, 약 아니 왕으네 사흘만 놔두민 시켜멀게 터. 그걸 해 쌍으네 물랑 집 내왕 보리쌀 물 켰당 보릴 청으네 항더레 담았주 (보리물 한 번만 갈아다 그것을 물에 담갔다가 시루에 삶아서, 명석에다가 골고루 퍼서 명석을 던고, 약을 놓지 않고 사흘만 놔두면 새까맣게 변해, 그것을 해쳐서 말려 김을 나게 하고, 보리쌀을 물에 담갔다가 보리물 삶아서 항아리에 담았지.).

12) 표준어로는 '시무룩하다'에 가깝다. 그러나 이보다는 좀더 강한 뜻을 지닌다. '어느 정도 화가 나 있어서 얼굴에 심통이 가득한 상태'를 뜻한다.

보리 조 허단 밀감낭 심금시작 허단 거시기 텅진 낭, 텅진 낭 가시 그거 해당 심거네 또 그것에 밀감낭 순 해당 접부치나네, 그거 혼 오년생이나 되 가사 염시작 허여(I. 대동적 연결어미 1.-난/-나네의 해석 참조.).

② -당으네

산에감 낭 그차당으네 문 끄서당으네 바당에 왕 고랑똥트멍 터우 맨들아 났주(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모두 끌어다가 바다에 와서 구멍을 뚫으면 서 태우를 만들었었지.).

메역 즈물앙 지게로 저당으네 밧되 걸름행으네(메역을 캐어서 지게로 저 다가 밧에 거름을 해서.).

조개7든 것도 터당 집에서 행 먹고 거시기 허주(조개같은 것도 잡아다가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고 그렇게 하지.).

③ -다그네

그런 감 해그네 칠월만 나민 그거 타다그네 보사그네 도고리에서 해그네 옷에 밍게여그네, 그거 물적지멍 발래영 이슬에 널얼놔두민, 초집 지신 맨 초집 우의 강 물적정 발경 널주게(그런 감을 해서 7월만 되면 그것을 따다가 짙아서, 합지박에 해서 옷에 먹여서 그것을 물에 적시면서 바래어 이슬에 널어두면, 초가집 지은 때는 초가집 위에 가서 물에 적서 벌리어 널지.).

5. 그 외의 것

‘-아사’와 ‘-젠’이 발견되었다. ‘-아사’는 반드시 그래야 함을 나타내며, 표준어 ‘-아, -어야’에 해당한다. ‘-젠’은 의도를 나타내며, 표준어 ‘-려고’에 해당한다.

① -아사

겨울 때사 물도 데와사 목욕도 허곡, 우리 살림살 때사 목욕 땡겨나서게. 그자 집이서 물데와그네 허곡, 저기 통에 강으네 물 명 허벅¹³⁾으로 지멍 다 항아리에 땡당으네 밥해먹고계(겨울 때야 물도 데워야 목욕도 하고, 우리 살림살이할 때야 목욕다녔었다. 그저 집에서 물 데워서 하고, 저기 통에 가서 물을 떠 허벅으로 지면서 항아리에 퍼두었다가 밥해먹고 했지.).

그저 혼 오년생이나 되가사¹⁴⁾ 염시작 허여(그것 한 5년생이나 돼야 열기 시작하지.).

② -젠

익기 전엔 감 옷에 드리젠만 타불민 그 나머지 익어사 타먹었주(익기 전에는 옷에 물들이려고만 감을 따 버리면 그 나머지는 익어야 따먹었지.).

방언조사에 협조해 준 제보자는 다음같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강윤경(女·77) 김순향(女·53)

오 정(女·87) 한정석(男·73)

현매선(女·74)

13) 여자들이 등에 저서 물을 나르던 질그릇이다.

14) '-아사'에서 '-아'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民 謠

목 차	
I. 勞動謠	6. 검질매는 소리
1. 밭 불리는 소리	II. 타령類
2. 마당질 노래	양태짜는 소리
3. 뱃노래	III. 童謠
4. 선왕노래	1. 애기 재우는 소리
5. ㄱ래ㄴ는 소리	2. 말잇기

서귀포시 보목리의 민요조사는 크게 노동요, 타령류, 동요로 분류하여 채록하였는데, 노동요가 대부분이다.

제보자들의 호의로 집단조사가 가능하였으나, 조사자의 경험미숙으로 인하여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조사를 통해 미비하나마 보충하였다.

표기는 구연자의 발음에 충실히 따르려 하였으며, 제보자 소개나 사실 주해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채록하는 데 있어 일본 노래를 우리말로 고쳐 부른 경우도 있었으나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I. 勞 童 謠

1. 밭 불리는 소리

어려 덜덜 어려 덜덜덜덜
 요놈의 몽생이덜아
 이구녁으로 셋넝드레
 셋넝으로 이구녁드레
 신나게 솔랑솔랑 걸으라보져 허허허
 어려 어려 덜덜덜덜
 요놈의 몽생이덜아
 뿔랑뿔랑 걸엄
 출동산애 나강 출도 먹고 물도 먹고
 나가게 허허허
 어려 덜덜덜덜

(김순향, 여·72)

2. 마당질 노래

- | | |
|------------|------------|
| A : 어야도홍아 | B : 어야홍아 |
| A : 어야도홍아 | B : 어야홍아 |
| A : 요동산도 | B : 때리고가자 |
| A : 굽을보자 | B : 어야홍아 |
| A : 앞가슴을 | B : 때리고가자 |
| A : 하늘을뵈우멍 | B : 앞가슴을 |
| A : 어야도홍아 | B : 하늘을뵈우멍 |
| A : 어야도홍아 | B : 어야홍아 |
| A : 요동산도 | B : 때리고가자 |
| A : 굽을보자 | B : 때려나보자 |
| A : 어야도홍아 | B : 어야홍아 |
| A : 얼씨구나 | B : 절씨구나 |
| A : 먼디사람 | B : 듣기나 좋게 |
| A : 북 든디사람 | B : 보기나 좋게 |
| A : 잘도헌다 | B : 잘도나헌다 |
| A : 어야도홍아 | B : 어야홍아 |

(A : 김순향, 여·72, B : 한춘선, 여·76)

3. 뱃노래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우리배는	잘도나간다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리간엔	화장아야	
물때점점	늦어나진다	
이erdo사나	이erdo사나	
구렁박을	어깨에메고	
수십바를	들어가니	
고동생북	쌩엿건마는	
높은남괴	열매로구나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우리네어명	날날격에	
남자로나	날나시민	
놈이나운들	내무사올리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요내를저성	어디를가리	
진도나바당	한골로가자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앞강의배는	뒤깁에메고	
뒷강의배는	앞깁에메고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요내를저성	우리어명	간곳이어던고
이erdo사나	이erdo사나	이erdo사나
해가지고	저문날에	
꿀묵마다	연기로구나	
흔져지라	정든개말	어서나가고
우는애기	젓을준들	
개도새기	채를준들	

民 謠

병든가장	물울준들	
어서나지엄	정든개말	들어나가자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우채부배달부야	지남칠불었느냐	
우리정든님	소식이없어나진다	
이에도사나		

(이화자, 여·65)

4. 선왕노래

아하야	애헤요		
물애들엉보난	일룩달룩헤영안되키여		
아하야	애헤요		
한락산애	올라가서		
아하야	애헤요		
풍선나무울	베어다놓고		
아하야	애헤요		
아하야	애헤요		
어기여차	배도넙작	이배틀지어놓고	
아하야	애헤요		
저바다애	느려다와서		
아하야	애헤요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아하야	애헤요		
굴대밀애	화정뱅이는		
아하야	애헤요		
물때나점점	늦어나간다		
아하야	애헤요		
셀물나가면	동해바다		
아하야	애헤요		
들물온나가민	서해바다		
아하야	애헤요		
우리편의	선왕님아		

아하야	에헤요		
앞발로랑	소리치고	뒷발로랑	건어치멍
아하야	에헤요		
아들이나	딸이더나	돈벌러	나섭서
아하야	에헤요		
우리배의	선왕님은		
아하야	에헤요		
고기잡이	좋은여반들고		
아하야	에헤요		
나서나줍써	나서나줍써		
아하야	에헤요		
해녀줍수는	바다에서노는구나		
아하야	에헤요		
우리가	살머는	몇백년이나살코	
아하야	에헤요		
막상에	살고봐야	당팔십이로구나	
아하야	에헤요		

(김순향, 여·72)

5. ㄹ래ㄹ는 소리

이여이여	이여동허라
늬의첩광	스남괴부름은
소리나도	사름미엇나
이여이여	이여동허라
오름의돌광	치새어멍은
동글당도	스름애난다
이여이여	이여동허라
우리머멍	날날적에
무신날에	날나그네
전싱곳은팔자	어던가민베통허리
이여이여	이여동허라
다슴어멍	죽엄가는질로는

民 謠

실거리남으로	다릴놓고
원어멍	죽엄가는길로라그넨
물맹지전빌로	다리놓자
다습어멍	산에간보난
가시소앵이가	스왁스왁
칼을들러	캐자허니
나웃음제왕	못캐키여
원어멍	산에간보난
당배치가	반들반들
칼을들렁	캐자허니
내눈물제왕	못캐졌구나

(이화자, 여·65)

6. 검질매는 소리

어랑어랑	방아로구나
앞뎡예랑	들어나오라
뒷뎡예랑	나고나가라
고분쇄야	나고나가라
동녘밭되	건들건들
요소리소리	앞넘어가자
어랑어랑	방아로구나
어야차저소리	내넘어간다
검질짓고	골너론밭되
어랑어랑	뎡으로구나
어랑어랑	사대로구나

(이화자, 여·65)

Ⅱ. 타 령 類

양태짜는 소리

수루천리	수루천리		
제주이천리틀	들어오니		
폭포수도 좋거니와	저산이름이	무엇이나	
일년이면	삼백육십오일		
양태나뜨기로	정착을하여		
저산이름을	몰랐더니		
제주도한락산이라고	하옵디다		(이순아, 여·71)

II. 童 謠

1. 아기 재우는 소리

자랑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칭얼칭얼	잠노래로		
그쳤다간	또하면서		
우리애기	잠든얼굴		
곱게곱게	잘도잔다		
자랑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우리애긴	부모애겐	효녀동이	
형제애겐	우애동이		
입가친척	화목동이		
동네방네	유생동이		
우리애기	칭얼칭얼	잠노래로	
그쳤다간	또하면서		
우리애기	잠든얼굴		
곱게곱게	잘도잔다		(현인선, 여·74)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우리애기	자는소리	
늑의애기	우는소리	
윙이자랑	윙이자랑	

民 謠

왕이자랑	왕이자랑		
이래오는	검둥개야		
저래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재와도라		
느네애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민		
총배총배	걸려다가		
지픈지픈	천지소에앗당		
드리쳤당	내기쳤당		
앞밭고냉이	뒷밭고냉이		
오랑	뜯어먹나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물아래	옥돌달은애기야		
왕이자랑	왕이자랑		
저가름밭되	가매기굴은애기야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아	할망손지	자랑아	
할망님으로	못훔일이	이시파보파	
이애기틀	은같은손으로	씨러줍서	
금같은손으로	씨러줍서		
물맹지로	씨러줍서	은맹지로	씨러줍서

(이화자, 여 · 65)

2. 말잇기

저산더랜	교박교박	델민	신방이여
미우쟁인	신다	신방은	두드린다
시민	하래비여	두드리민	칠쟁이여
하래빈	등굽나	칠쟁인	접진다
새진맥가진	네구녕난다	접질민	쟁이여
네구녕나민	시리여	쟁인	볶나
시린	검나	볶으민	엿이여
검으민	가마커여	엿은	떡나
가마권	덴다		(이순아, 여 · 71)

說 話

목 차

- | | |
|----------------|----------------|
| 1. 설섬구렁이 | 8. 소가 된 사람 |
| 2. 조노쾌당 | 9. 이축생 |
| 3. 서인이 목사와 구렁이 | 10. 여우이야기 1 |
| 4. 토산 구렁이 | 11. 여우이야기 2 |
| 5. 변인태1 | 12. 개와 고양이 |
| 6. 사람 생긴 유래 | 13. 변인태 2 |
| 7. 아들 7형제 | 14. 당 모시게 된 유래 |

1. 설섬구렁이

제 보 자 : 오순삼(남·67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2시 30분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68번지 원광사

저 설섬¹⁾이라고 하면은 만고상청(萬古常靑)이라 하는데 거기에 듣자 하면은 제주도 아마도 개발 이전이랬지. 이전이랬는데, 비가 올라면은 이 설섬 오름에 설섬꼭지에 안개를 켜. 안개가 끼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은 그기 배염(뱀)이 사는데,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옛날 여기서 들어보면은 구렁이가 육상 천년, 수중 천년은 해가지고, 마른 발에 천년 살고, 천년 살아가지고 바당(바

1) 서귀포시 보목동 앞바다에 있는 섬. 森島.

說 話

다)에 내려가서 물에 천년 살아, 2천년 살든 용이 된다고 허는 역사가 있는 디, 저 설섭에 그러헌 큰 구렁이가 2천년 묵은 구렁이가 있었다가선 용울 될 띠라고 해서, 그런 뱀이라는 늬은 원래가 발도 어신(없는) 늬이고 팔도 어신 늬 인디, 용 될라면 천지자연적으로 발 네 개 뜯고 머리뺍에 팔 뜯고 그 다음에는 바당(바다)에 가서 구실(구슬)을 물어 오는데 구실이 이롬이 두 가지라. 야 광주(夜光珠)라 허면은 밤 야(夜) 자(字)허고 빛 광(光) 자(字). 밤에 이 구실만 들러도(들어도) 저 전기불 썩(썩) 거 모양으로 그추룩(그렇게) 흰허게 사방이 비추게 되고 밝아지썩, 거 이롬이고, 또 이체는 여의주(如意珠)라 허었어, 여의주라든 갈울 여(如) 짜²⁾고 뜻 의(意) 자. 자기 뜻대로 된다, 그 구실을 물면은, 그런 구실을 물어야 용이 되가지고 완전히 용이 되어서 하늘 옥황 올라가서, 이제 옥황상제 명령 받아가지고 세상에 물을 주라 허면 물을 주고, 비를 주라 허든 비를 주고 허게 되었는디.

그러든 이제 하늘옥황에서는,

“네가 그 여의주를 봉가서” 물어 오너라. 물고 올라 오너라. 물어오면은 용으로 사용허겠노라.”

“거 어디가 있습니까까.”

허니, 그 댜 아마 그렇게 말했던 모양이지. 어떻게 신화적(神話的)으로, 저 직귀섬³⁾이란 섬이 있어, 위미리⁴⁾ 아래.

“직기도라는 섬과 이 설섭 중간에 대해(大海) 바다에 그 여의주가 신디(있는디) 물어오라.”

그러니, 그놈의 배염이라는 이 천년 묵은 구렁이가 용울 반은 돼났는디, 다 됐는데, 그 여의주만 못 물어서 용이 못되고 있는디 여의주를 찾으라. 따 지(地) 짜²⁾허고, 터 기(基) 짜. 지기도(地基島), 저 섬은 복지(伏地)가 없어, 편편해여, 구렁이가 용이 바닷물에 가서 수심(水深)이 수천만길울 헤매고 바닷속을 헤매왔대야 그 구슬을 찾지 못헤여, 여의주를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 찾다 찾다 버치니⁵⁾ 못 찾아서 설섭에 와서 죽었다. 그놈의 게 죽으니까, 자기는 용은 되어났는디 여의주 못 찾아갔기 때문에 용의 구실을 못하고 보니까 죽어.

2) 주워서

3) 직귀섬

4)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5) 힘에 부치니

죽어지는데 저기가 원혼(冤魂)이 되어서 막 가슴에 맥혀져서 원혼이 되어서, 요것이 내가 서럽단 말이여. 내가 여의주를 봉가 물어서 내가 용의 구실을 해가지고 옥황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천지를 자유자재(自由自在)할 거인디, 그 걸 못 물기 때문에, 용은 겁데긴 용이 되었지만은 진짜 용이 못되어서 말라죽게 되니까 <XXXXX>⁶⁾ 졌기 때문에, 그 눈물, 근심으로써 비가 올려면 안개가 쩐다. 안개가 그 때문이다. 배염이라는 동물의 원혼이라는 거지.

2. 조노괘당

제 보 자 : 오순삼(남·67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2시 30분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68번지 원광사

저 보목리 북쪽에 가면은 조노기 본향(本鄉)이라는 당(堂)이 있어. 신당(神堂). 조노괘당이 있는데, 그 당은 원래가 어디 있었나 그러면 저 절오름 동쪽에 밭에 옛날 불목리 조상들이 여기 부락을 건설해 살 때에 거기 집을 지어서. 당을 모셔서 병자(病者)나 누가 나면은 그디 가서 집에 가서, 당집에 가서 굿을 하고, 또 여기 어부(漁夫)와 잠수(潛瘦)들이 가서 절하고 해서 바당에도 가고 허였는데, 허다가선 어멍허영 그 때 마침 엄동설한 추운 때가, 어떠한 저지가, 얻어먹는 저지가 보목리까정 얻어 먹으려 들어오다가선 날이 추우니까 아마도 당집 앞에 이렇게 추그령⁷⁾ 앉았지. 해 발르니까.⁸⁾ 추그령 앉았다가 보니까, 아마 그 때도 그 사람이 담배사 먹었든 어멍 했든 불을 <XXXX> 오곶⁹⁾ 당집을 카부렀단(타버렸다) 말이여. 당집을 카부니까 불목리¹⁰⁾ 사람들이, 불목리 민중이 모다 집을 내가지고 그럼 당집은 카비었으니 여기 있었던 당신(堂神)은 어디 갔는고. 당신 도망가버렸는가(도망가버렸는가).

6) 침취불명. 이하 같음.

7) 주그리고

8) 햇빛이 바로 비추니까

9) 어찌다가 그만.

10) 이 쪽 사람들은 보목리를 보통 '불목리'라고 부른다.

說 話

돌아났는가(달아났는가) 행(해서) 걱정할 거지. 심방들 해다가 굿을 허는디. 어디 가수과(갔습니까), 어디 가수과. 거기 가서 신을 좇아(찾아) 보는데, 저 보목리 저 북쪽에 가른 조노기라는 거기 굴이 있어. 그 당신이 그디 들어갔다는 게라.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조노기당. 일름을 지었던 말이여. 조노기당이래 허는디 당 구신(鬼神)은 뱀인 모양이라. 아까 저 용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뱀인 줄 아는고 허니까 조노기 굴 속에 가서 불목리 민중이 정성을 허고 굿을 허는디. 여기 보목리 유지가 혼분이 어서 나서. 나오랑 보니까. 부락유지로 해가지고 그 당을 수축(修築)허게 되었어. 그 당안에 모다¹¹⁾ 아래¹²⁾ 앉는 자리던지 모두가 추접허다(더럽다) 말이여. 몬지(먼지)도 있고, 풀도 나고 허니까. 그러고 또 거기다가 주민들이 가서 떡이든 밥이든 행 올릴랴면 올리는디가 자리 없어서 못허니까 이제는 거기 올려놓 탁자를 만들려고 말이여. 세면(시멘트) 공살(工事들) 할려고. 할려고 해서, 할려른, 심방 빌고(청하고) 이렇게 하겠수다(하겠습니다). 공사허겠수다 비는디. 그러니까 그 나도 저 직접 그 어른은 꼴안(말해주니) 내 들었주. 그 어른 말씀올 들어서. 아 심방허고 빌레 강 보니까 그 굴 속 앞에다가 그 밥 올린 앞에다가 큰 구렁이가 아마도 이보다 살진 놈 <XXXX> 누웠다 말이여. 사람이 어시니까(없으니까). 심방이 굿을 허면서 슬허게¹³⁾ 손으로 썰어(쓸어) 보고설랑 그 중훈씨라는 보목 유지 보고도 이걸 썰어 보라고 아무토(아무렇지도) 앓은다고 이거 여기 당지기니까, 당 직허는¹⁴⁾ 귀신이니까 아무토 안허한다고 그러니까 그 나도 직접 그 어른은 꼴안 말씀올, 중훈씨라는 분이 아무토 안허더라고 거면서 '거 완전히 신은 신이더고.' 헌 말 내 들어왔주. 재주도 당은 모다가 배염이라.¹⁵⁾

11) 모두

12) 아래

13) 살살

14) 지키는

15) 사실과는 다르나, 뱀신앙이 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듯하다.

3. 서인이 목사와 구렁이

제 보 자 : 오순삼(남·67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2시 30분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68번지 원광사

제주도 역사(歷史)가 있는데, 제주 역사가 있는데, 일레당 여드레당 현 말이 있는데 건 뭐냐하면, 옛날에 제주도에 이씨 조선 때 서인이¹⁶⁾ 목사가 오라설란 제주도 당을 다 부좌불¹⁷⁾ 때 말이며, ¹⁸⁾ 부좌불 때에 저 김녕이 당 시 존디¹⁹⁾ 김녕으로 죽 내려오면서 도막도막 찢라비였어. 그 서인이 목사가 이거다 미신이라고 해서 뱀을 모다 처음에는 김녕의 뱀이 뭐냐면은 계난, 제주도 풍속이 그래여. 김녕당은 정성할려면은 인재수, 서하리 당은 도세기²⁰⁾ 제수, 신촌당은 돛제수. 토산당은 계란제수한다고 했어. 그게 그러니까 서인이 목사가 김녕당은 오라가지고 설란, 어디 넌장 사람을 갖다가 제수헌단 법이 있느냐고, 사람을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고. 똬놈의 귀신이 그러냐고. 어딴냐 좀 보냐고 허니까 김녕사굴(金寧蛇窟) 강 보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 꺼내라고 말이며. 꺼내라고. 어디 꺼냅니까. 어떠한 꺼낼거나. 굿해야 꺼냅니다. 그러면 심방 빌어당 제주도 심방 다 모여당 굿을 허란 말이며. 굿을 허는디, 그 때는 아마도 정성을 헐려면 인재수, 사람을 제수로 허는디 하필이면 처녀제수 곤는 말이. 처녀가 아맹해도²¹⁾ 누젠들 이녀 뜰줄라고 허나 뭐. 안줄려고 허거든. 허니까, 막 어디 천천 아줌마 천천 사름의 뜰, 또 돈 어신 사람, 돈이나 막 쥐가지고 그 부모는 뜰 허나 팔면은 지네 팔자 고칠 거니까

16) 徐麟 判官

17) 부수어 버릴

18) 당오백 절오백을 없앤 사람은 瓶窩 李衡祥 牧使이다.

19) 제주도 당본풀이에서는 송당을 당시조로 이야기한다. 곧 제주도 각 지역의 당은 송당으로부터 분파된 당이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가지 가른당'이라 한다.

20) 돼지

21) 아무리 해도

說 話

<XX심방> 굿허는디, 처널 ㅎ나 사다가 영영 굿해가니까 나온다고. 저 멀리 나오라고. 차차차차 멀리 나가는데, 나왔어. 나오니까 그 때 서인이 목사가 그놈을 활로 쏘아두고 제주도 <XXXX> 돌아다니면서 도막도막 잘라부는 디, 여덟도막 최고로 잘라붙고 다 여덟도막은 다 잘랐는디 말이며. 그 쪽에는 두도막 붙은 놈도 있고 세도막 붙은 놈도 있고. 세도막 붙은 놈도, 다섯도막 붙은 놈도 있고 허는디 붙으니까 이제는 붙었는디, 마지막 허다 보니까 일곱도막 붙은 거 여덟도막 여덟도막 붙은 놈은 여드렛당 팔일당 이랬다고 역사가 있는디.

그랬는디, 서인이 목사가 당을 부쇠두고는 또 제주도 오라서 좋은 일도 했지. 저 골총, 골총을 잘, 저 임자없는 산들, 가시덤불 막 씌워진 산들 잘 벌초(伐草)해서 깨끗하게 해 주라고,²²⁾ 주민들보고 시기니까.

도막도막 잘라두고 김녕당을 부쇠두고는 오꽃 활로 쏘두고 몰 타가지고 돈는 도중에 그놈의 뱀이 피가 그냥 막 안개모양으로 문²³⁾ 와가는데 저 제주 산지포(山池浦)²⁴⁾로 가다가, 배 타고 나갈려고, 나갈려고 하는디, 풍우대작(風雨大作)허되, 풍우대작, 뱀의 조화(造化)로써 바람불게 비오고 조화부령 못가게 허는디 골총 귀신들이 나와서 그 배를 곱게 밀어줬다 말이며. 그 양반이 육지 고향 나가서 서울 갔다 왔지.

4. 토산 구령이²⁵⁾

제 보 자 : 오순삼(남·67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2시 30분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68번지 원광사

토산당이 뭐냐면 그 때도 토산에 잠수(潛嫂)들이 물에 들당보니까, 굽닥한

22) 골총을 정비하는 등 선정을 베푼 사람은 奇度 牧使이다. 이와 관련된 설화가 제주지역에 널리 전승되나, 대부분 서린관관과 관련되어 나온다.

23) '모두', '다'라는 뜻. 여기서는 '거의 다'

24) 제주시 건입동의 포구. 현재의 제주항.

25) 토산당본풀이와 같은 내용이다.

하꼬²⁶⁾가 떠왔단 말이여. 떠오니까 야, 잠수들이 이거 고운 거여. 우리 깨보자, 깨보자. 뭐 보물들었져, 깨보자. ㄷ분단²⁷⁾ 말이여. ㄷ타가니까 그 때 토산 밑에 김씨 총각 보재기가 있었어. 어부가 보재기가 뭇 주락 메고 고기 낚으레 가다 보니까 잠수들이 뿔 봉가서, 지집아이²⁸⁾ 잠수들이 막 도탐서,

“야, 너네 뿔들 ㄷ트느냐?”

“아, 우리 이저 봉강 막 ㄷ탐수다.”

“야, 그러지 말고 놔두라, 영. 우리가 깨언 봐서, 깨영 봐서이 요것이 보물들었거든에 반 갈라서 반이랑 니네 갈랑먹고, 반은 나 아지켜.”

그러니까,

“그렇게 험주기, 남제(男子)니까.”

보재기놈은 지꺼져 가지고 그놈 곱닥헌 하꼬를 쫓단 말이여. 쟁 보니까, 문 딱²⁹⁾ 뱀이라. 그 소굽³⁰⁾에 뱀이가 큰 구렁이가 하나 있고 새끼가 여섯 개라. 일곱 개란 말이여. 보재기 놈도 에에 <XXXX> 추접허다³¹⁾ 허면서 눈꼴 허여볼더니 그놈은 그날 바당 강으네 참대도 꺾어져 어서³²⁾ 간다. 칼도 잃어 부러간다. ㄴ려경³³⁾ 다리도 꺾어져 간다. 잠수들도 보물이든 갈라먹젠 허당다 강 에 더럽다 춤 밧아분 사람은 물질도 못행 집이 강 입 트라져³⁴⁾ 분단 말이여. 허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 그 보재기나 잠수나 막 죽어가니까 어디 가서 물으니까, 너네 조상 박대해부니까 거라. 그 때 모다 굻들 행 그 사람들 살아났주 뭐. 굻행 살아났는디 이놈의 당 귀신이 글로서 얻어먹어 가는디, 이 중문(中文)이레까지 오락도 먹고 동으로 돌아가는디, 저 동으로 돌아 가명 얻어 먹는디, 술술 일곱개가 기어 강 시면은 사람 방 에이 더럽다 허는 사람도 춤 밧은 놈도 입 아프게 해분다. 토라지게 현다. 그놈도 <굿헌대XXXX> 얻어먹영 간단 말이여. 저 제주시 가면 동쪽에 어디 배부른 동산 이서, 배부른 동

26) 일본말. 箱子.

27) 다룬다

28) 제집애. 여기서는 단순히 여자라는 뜻.

29) 모두

30) 속에

31) 더럽다

32) 없어져

33) 넘어져

34) 입 비뚜러져

說 話

산. 거 어디 실 거라. 이제 신식(新式)말로 모르크라마는. 배부른 동산 앞에 배가 불영 못나가. 못나가 영 누워부렀단 말이여.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로부터 그 동산을 배부른 동산, 이름을 져붙고. 거리서 쉬어가지고 칠성통 가니깐, 널랑 안방지기 해라, 널랑 문전지기 허라, 널랑그네 어디 변소간지기 허라. 널랑 어디 해라. 거기서 자릴 잡아부니까 칠성이 여기서 자리잡앙 들어앉아부니까, 칠성통이라. 그게 역사라.

5. 변인태 1

제 보 자 : 오순삼(남·67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2시 30분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68번지 원광사

서귀포 조방장, 조방장 <부하엔 X> 그건 아니주. 조방장이라는 건 요셋말로 허면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제주 <XXX> 쌓아 가지고 할 때에 그 서귀포 방위대장(防衛隊長)이지. 조방장이엔 헌 계. 방위대장이라면 시방 읍장(邑長)보담 높으지 그계, 그 때는. 조방장 부하였는디, 부름씨꾼³⁵⁾인데, 그 사람. 뱅인태가 사람이 막 지레³⁶⁾도 크고 청개구리모냥 거짓말도 잘 한다고 허니까, 어디 저 동편으로 넘어 감시니까 누계가 여름에 겹질 매다가,

“저, 뱅인태!”

“왜불러.”

“하도 거 말 잘 한다고 허난게 거짓말이라도 혼 마디 허영 우리 웃겨될 가주.”

“에, 거짓말 할 저를³⁷⁾ 어수다. 저 시방 서귀포로 왜(倭)배 들영 막 이제 제주군(濟州郡) 감니다. 제주군 시방 목사(牧使)신디 보고허레 감수다. 보고허레 감수다.”

겹질매던 사람들이 확 겁내어 가지고 발뒤 일허던 사람들이,

35) 심부름꾼

36) 키

37) 겨를

“아, 우리도 혼자 가세. 혼자 가세.”

거 짐질때던 사람이 경했다 말여. 일허던 사람들이. 그제 거짓말이라. 뺑인태가 그때는 다른 사무(事務)보레 가는디 제주시(濟州市) 보고 제주군이라 허고, 서귀포 <XX 관청> 제주시엔 걸영가는디……

밥을 해도라민 그뎨 아마 그 사람이 조방장 먹을 밥도 해가, 반찬도 해가, 현 모양이지. 밥을 허라허믄, 설다 허민, 설영 못먹켜 허믄, 아 이제는 그 변인태가 배는 크거든,

“설영 못먹켜. 너 갖당 먹어볼라.”

허믄,

“아. 경험주.”

갖당 먹어볼라. 아, 이제는 설으민 다시랑 익게 가져강 무랑허게 행 가믄,

“이젠 익영 못 먹켜. 갖당 먹어볼라.”

허믄,

“예. 고맙수다.”

다 먹어부러. 다 먹어부는디. 혼번은 췌기를 구웁 가는디,

“이 여석아, 췌기를 왜 이렇게 카게 구우느냐. 먼 불에 최어가지고 노랑허게만 구지, 어떻게 그렇게 카게 구으민 먹어지느냐, 이거.”

뺑인태가 조방장 상 출리면서 상에 췌기 올리라 해여. 고기를 꺾다 올리면은 조방장이 패라운³⁸⁾ 하르방이라 노니까, 너무 카서 못 먹켜 현다 말이거든. 먼불에, 불을 너무 가가이도 허지 말고 먼불에 최어야지, 되느냐. 혼번은 서귀포서, 밤인디. 영 고기들렁 사서. 저 호근³⁹⁾이 아래. 삼의봉⁴⁰⁾ 있지. 서귀포 서쪽에 삼매봉. 거기 가가지고 거기도 망불⁴¹⁾이 이서, 그때는. 망불싼디 서귀포서 뺑인태가 고길 영 들렀단 말이여. 조방장이 보니까,

“거 펼허나 시방.”

“조방장님 먼불에 고기 최우렌 허난……”

38) 매서운

39) 서귀포시 호근동

40) 삼매봉을 잘못 발음한 것

41) 봉화

6. 제주도 사람 생긴 유래

재 보 자 : 오순삼(남·67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2시 30분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68번지 원광사

중국 나라도 옛날에 십이제국, 열 두 나란데 말이여. 진시황(秦始皇)이 그 열 두 나라 막 통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스물 일곱살에 천자(天子)가 되었어, 천자. 늙도 말고, 죽도 말고 해 보자고 허는디, 중국에 점쟁이 점지는 점술서, 무당들 굿허는 무당서, 각교밀는 경서, 다 모아오라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 솔라부는디,⁴²⁾ 우리 부처님 경전은 책을 카다가 부처님 경전은 노랑해 가지고 안캬어, 안 카니까 이진 부처님 공덕(功德)이라 해서, 책 이름을 황권(黃卷)이라 이름을 지었어, 황권, 누를 황자(黃字) <노랑허게××> 카지 안했던 말이여. 요만쯤은 카더니만 남았이니까, 황권이라 이름지완 허고, 또 하여간, 늙도 말고 죽도 말고 허더니 몬딱 살라불당 보니까 늙을 로자(老字), 노인(老人)이라 쓰는 글잔 하난 아니 캬단 말이여. 거 이상허지 안허냐. 막 한라산굴이 쌓아 놓고서 불살라 부는디, 노인이라 쓰는 늙을 로자 하난 아이 캬단 말이여. <××× 보니까> 진시황, 사람이 늙는 거로구나.

하여간, 그러나, 불로초(不老草) 불사약(不死藥)을 구허자 해가지고 자기 죽도 말아보젠 늙도 말아보젠 허는디, 서시동(徐市童?)⁴³⁾이란 신하를 보내되, 서시동인가 허는 그 사람을 보내되,

“동남동녀(童男童女) 삼천명씩 육천명, 지집아이롤 삼천명, 소나이 삼천명, 육천명 두리고 네가 가서 불로초, 불사약 캐오너라.”

보냈는디,

“저 동방(東方)나라, 동방이라. 소국에 조구만현 나라에 삼신산(三神山)에 있다. 이약이 있다 현다. 강 캐오너라.”

42) 태워 버리는데

43) 서시(徐市)라고 하나 서불(徐市)이다. 진시황때 사람.

서시동인 동남동녀 육천 명을 끌고설랑 어디 명이나 안 허른 진시황헌티 죽 어질거고, 오랑 허는디 우리 나라 와서, 그 댜 남북이 갈라지지 았을 때거든. 옛날에니까, 저 묘향산으로, 묘향산이 옛날 백두산이지. 백두산으로 금강산으로, 제주 한라산까지 삼신산이여. 그디 강 좃아보난에, 어시난에. 알게 뭐여, 지네들이. 누물추룩⁴⁴⁾ 알아저게. 질 약인디. 아 이제는 거기 강 어성 제주도까지 막 오랑 한라산 보난, 한라산 돌아봐도 없단 말이여. 좃지 못허거든. 에이, 이제는 어십디다 가른은 다 죽여불꺼고 허니까, 에이 도망가불자. 저 동방디레 가분게 일본(日本) 가비였단⁴⁵⁾ 말이여. 일본 가비연 보니까, 강영 보난에 아 사람이 세 개가 어서, 사람이 서이 떨어져 불었어. 간 행중에서. 육천 명 간 중에서. 서이가 떨어정 엇단 말이여. 아, 이거 제주 한라산에서 떨어졌구나. 그건 왜 그런고 허니 산에 약 캐레 땡기당 뭐 나무 열매도 타 먹고, 굴이 땡기도 안허고 자기네끼리만 막 다니거든. 약을 봉그젠 허른. 육천명을 하나들 생이네⁴⁶⁾ 세어질거고. 얼마나 오래 걸리고, 세지도 안해가지고 막 모아지난 다 모아졌다 허영 실러 강 보니까 서이가 엇단 말이여. 아, 이거 제주 한라산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때는 서시동이 지집아이를 세 개 또 이디 보냈단 말이여. 하꼬 짜 가지고 너희들랑 그레 강 그 사람허고 벗허고 살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좃어먹당 낚 오랑 보니까 다 가비여서. 이젠 우리만 서이가 벗해 가지고 다시면은⁴⁷⁾ 나무 열매 따 먹고, 추우면 바당심은 나무 열매 오랑 따먹고 바당에 뭐 좃어먹고 허는디 성산면 신앙리(新陽里)엔 현 부락에 내려와서 개앗디⁴⁸⁾ 강 뭐 좃어먹당 보니까 동방으로 곱닥한 하꼬가 세 개가 동실 동실 떠온단 말이여. 아, 이 뭐 떠오네. 서이가 보니까 지네안티⁴⁹⁾ 떠오라. 하나씩 하나씩 그놈의 하꼬를 봉가서. 하꼬가 야맹해도 요런 거 이 그릇 논 거 만인⁵⁰⁾ 해실 거여. 아매도 사람 하나 담은 거난. 아 열앙보난 문딱 지집아이가 세 개라. 하나씩 손잡아 가지고 가는디 어디 가느냐 하면은 신앙

-
- 44) 나물처럼
 - 45) 가버렸다
 - 46) 헤아려서는
 - 47) 따듯하면
 - 48) 바닷가에
 - 49) 자기들에게
 - 50) 만큼은

說 話

리서 붙들어 가지고 가는데, 신양리 위의 가문 온평리(溫平里)라는 부락이 있어. 온평리 위의 가설랑 거기에 못이 있단 말이여. 연못, 물 말이여. 물 이시니까 여기서 목욕허자. 여기서 우리 잔치⁵¹⁾허자. 지네 <XX> 잔치헌 거지. 잔치해서는 그 때 나무열매 따 먹으멍 가다보니까 제주신 가고 보니까 그 댜 뭇 집이 있나. <XXX> 그 큰 천지를 이시니까 끝에 들어 가서는 우리가 날 좋으믄 ㄷ스믄⁵²⁾ 올라와서, 뭇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 사는 걸 시조라, 고랑 삼성혈(三姓穴)이라 허는데, 온평리 부락 가문 그 못 이름을 혼인지(婚姻池)라고 했다고 허드라. 그 때 해가니까, 그 때 이름이 혼인지라. 못 지짜(池字) 못. 혼인해난 못이라. 그럴 역소가 있다고 헤여. 그러니까 그 때는 아무도 없을 때에 그게 나오니까, 이리 고랑부(高良夫) 삼성(三姓) 땅 속에서 나왔다. 땅속에서, 사람 나올 리가 있나.

7. 아들 7형제⁵³⁾

제 보 자 : 강순아(여·57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저녁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688번지

아들은 일곱 성제고, 아들 일곱성제 놔뒀네 어멍은 돌아가비였주게. 돌아가 부난 이젠 새엄마를 해왔주게. 새엄마를 해 오란에, 그 새엄마는 아들 일곱성제 요새 세탁기여, 비누여 시난 빨래힘도 저들지⁵⁴⁾ 안했주마는 옛날에는 이 발구석에 강 <XXXX> 끈작끈작헌 거 해당 머리도 감고 빨래도 허고 <XXX> 해당 베옷도 빨고, 얼마나 어머니들이 <XXX> 많이 많이 고생허난. 그 새엄마는 아들을 일곱 성제 키우젠 허난 얼마나 얼마나 고생해실꺼게.

51) 여기서는 결혼이라는 뜻

52) 따스하면

53) 내용으로 보아 제주지방에서 불려지는 서사무가 「문전본풀이」를 수용한 설화이다.

54) 근심하지

그 새엄마는 <XX> 수건으로 이땀이⁵⁵⁾ 딱 땀이⁵⁶⁾ 석달 열흘 누울 거 아니라. 아프면 퍼현⁵⁷⁾. 아프덴 누난에 아들들이 왕 어명신디 조근조근 앉으난에. 이제 뒷집에 강 점을 쳐 오랜. 점을 쳐오랜 허난에 점쟁인 또 그 새엄마주게. 아들들 나간 트멍⁵⁸⁾에 뒷집디레 ㅎ룩허게⁵⁹⁾ 가네 아들들은 질로 돌아가고, 어명은 집담으로 쫓쫓⁶⁰⁾허게 가네. 강 아자네,

“어땡행 완딘.”

허난에,

“어머니가 이치룩 스못 아파그네 삼대육대(三代六代) 누우난에 점치레 와수다.”

허난에,

“아무 것도 아니랑 아들 일곱 성제 애⁶¹⁾ 빠당 먹으면은 병(病)이 나실거라.”

허난, 이젠,

“게민 경허파?”⁶²⁾

아들은 점져네 질레 을 트멍에 셋담질행 제 자리 왕 누원에,

“아야. 아야. 아야.”

허멍 누워시난에,

“점치레 강 무시거엔⁶³⁾ 꼴아니?”

허난에,

“어머니, 다른 말이 아니고, 아들 일곱 성제 애 빠그네 먹으면은 병이 낫으켄 험디다.

허난에,

-
- 55) 이마
 - 56) 동여매고
 - 57) 퍼병해서
 - 58) 사이
 - 59) 화드득하게 빨리
 - 60) 곧장
 - 61) 창자
 - 62) 그러면, 그러십니까?
 - 63) 무어라고

說 話

“죽어볼른 말주. 죽헌⁶⁴ 애기들 애를 어떻 빠먹느니.”

경 꼴안 했당.

그 아들들이 암만해도 수상헌 신호보난 일곱 성제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간애 증승⁶⁵ 애를 빠은 거라. 짐승 애를 빠와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 무시거 허고 우리는 이제 그치록 점바치⁶⁶ 가 원디 안 살립니켤.”

헨.

“나 하나만 살아네 여섯 엘 빠 와서매, 요거나 먹어봅써.”

허난애

“어떻 설은 애기애들 니네 앞에서 먹느니. 이디 놔둠 가면은 나만 먹켜.”
경해네 놔둠 오라네. 연날에는 문쌀문해네 종이로 튼튼하게 발라부난애 베리진 못할 거난애, 그걸, 그 애를 증승애를 내비뵈애 아들 일곱 성젠 문 배꼬피 사네 문딱 문 터주멍 영 영 보난.

이불 걷고 초석(草席) 깔앙 누우난, 초석 걷어네 문딱 초석 말이레 꼴아네 그 할망이 누워네 이젠 먹은 추묵 행⁶⁷ 놀 거 아니라. 누난애, 그 아들은 가네.

“어머니, 어머니. 어떻허젠.”

허난.

“애 문 먹어봐도 죽헌⁶⁸ 아들들만 죽여뵈주. 말찌⁶⁹ 그냥이엔.”

허난.

“설은 어떻 자리나 나 한번 치와 보쿠다.”

허난 자리 치우젠 허난 그 할망이 께께께께허멍 누시 그 초석을 걸영 보른 애는 실꺼난애게, 께께허멍 자리만 안 치우젠 해도, 경해도 애기엔 허고 설은 어떻 오줌싼 거나 치와 보쿠다 해네 자리를 치우당 보난 그 애산디 소금산디 뵈던 시난애 아들 여섯 성제가 모다들라 해네, 그 어멍을 내쫓아 비였주게.”⁷⁰

64) 가까운

65) 짐승

66) 점쟁이

67) 먹은 것처럼 해서

68) 가까운

69) 말짱

70) 무가에서는 종말이 더욱 비참하다. 육신이 갈갈이 찢겨 그 조각조각이 각종 독충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8. 소가 된 사람

제 보 자 : 한제춘(여·73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1205번지

부밀⁷¹⁾ 저들루난⁷²⁾ 애기가 막 저들루단에 명질⁷³⁾ 놔두난에 도둑질 해아정 산중(山中)에 간애, 가당보난 어디 돌아남으로⁷⁴⁾ 돌아주게. 돌아남으로 돈당 보난 여우가 아자네 막 쇠무짐을 망글다네, 쇠무짐을

“이거 아저씨 뭐센 험이파.”

“쇠무지에 이걸 썬보랜.”

허난,

“아구 나 이거 안쓰쿠덴.”

해도 억지로 쇠와 부난애, 쇠가 되영 막 으망 으망 으망. 그 사람은 이젠 읍사장에 강 험아 먹었주게. 쇠 되어그네, 읍사장에 풀아네 아고 이제랑 쇠 밭 갈당이라도 무우밭 어염⁷⁵⁾이강 밭 갈다네.

“으멍 으멍, 나 쇠 아니우다, 아니우다.”

해도 쇠로 쳐 두드리멍 갈아네. 쇠 놔도네 밭담 다는⁷⁶⁾ 동안에 무우밭애 기들 어네 무우 먹젠 영 허난애, 그건 무짐에 벗겨져 부난 사람 되어네 돌아오라그네 그 사람 잘 살았젠 험디다. 부물 경⁷⁷⁾ 주들루지 말아사 허는 거라. 새 사람들이라도.

71) 부모를

72) 금심시키니

73) 명주를

74) 도망감으로

75) 근처

76) 밭경계를 돌로 쌓는

77) 그렇게

9. 이축생

제 보 자 : 강태현(남·71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88번지

열여덟부터 마흔까지 놈의 종살일했던 말이여. 충청도에서. 종살일허는디, 자주 앉아서 얘기하는 거 들으민.

“야, 서울가민 쪽집게 있어, 서울가민 쪽집게 있어.”

백냥짜리 쪽집게 있다 이거여. 돈 백냥이 지금 7트른 천만원돈 넘는단 말이여. 그 샅을 내야 점을 혼 번 친다고 말이여. 경허너랜 허니까니 돈은 늘 강알”에 창 댕기는 사람이라 허리에. 열 여덟살부터 마흔까지 모은 돈 누게 아저가카 부덴 허리에 창 댕기는 사람인데. 열 여덟살부터 <XX> 천디 거 주인장이,

“서울 아무 대감집에 부름씨 강 오라.”

고 해서 주소영 잘 골아주고 말해주고 해서 가는다.

“에이 기회에 좋다.”

고. 대감이 서울 아무 양반집에 편지 갖다 뒹 오라고 말이여. 그래서 길이영 잘 7트차 주고 허니까지 아무안티라도 강 돌영 어디로 어디로 아무 집에 어덜로 어덜로 가그네 야 기회에 여기 쪽집게 집이 있다고 허는디 죽으랜 허른 죽고 살랜 허른 산다고 허는디 나 뭐 열 여덟부터 마흔까지 돈 벌어놔 뭐 할 거냐 말이여. 장개도 못 가고 허는 건디. 에이, 죽으나 사나 혼번 가보켄. 그 집을 혼번 좇아가 보니 집이 굉장허여. 막 문지기가 들이 썩 사고 창 짚어서 사고 허는디,

“여기 점치는 집이냐?”

고 허니까, 기엔 허난에 점지랜 왔다고 허니 입은 게 종이라 노니 누추하고, 문지기들이 들여봐주냐 말이여. 막 씹는 거여.

"왜 왜 왜, 난 점 못청 가느냐?"

고.

"난 사람 아니냐?"

고. 막 싸와가니, 점쟁이가 그 소릴 들어 가지고,

"거 어떤 일들이여."

"이만 저만한 늬이 와 가지고, 서방님 만나그네 점 청 가쿠덴."

험젠 허난

"아 들어 몰라."

고.

"그치록 손님을 박대하믄 되냐?"

고. 만나켄 허난 들어 몰라고. 들어갔주. 들어가난,

"점채 가정 왔냐?"

고 허니까 허리떨 클러 가지고 점쟁 내놔.

백냥돈은 다 발안에 점채는 내니까 우리집에서 장정 다섯 사람을 오랜. 겐
힘센 장정을 다섯 사람 뽑아 가지고 오는데 쇠알베⁷⁹⁾ 두장을 가정오랜. 쇠
짐 시끄는 베가 너 발 다섯 발 짜리 베 두개 가정 오라는 거여. 혼 발에치주
게. 게난에 쇠 두개 짐 시끄는 벨 가져오랜 해그네, 걸 가정 오랐어요. 가정
와그네 이 사람 쇠알베로 묶으랜. 이거 이젠 점치래 간 늬은 암만 종살이 현
늬이지만, 일이 이상케 되 가. 묶으랜 허니까니, 점치래 오랑 언제 장개 가
켜, 언제 집 사켜 그런 말이나 곱아 주카부덴 허당 보난 쇠알베로 묶으랜 허
난 야단났다고, 육지왕 보난 아맹⁸⁰⁾ 멍텅해도 종살이 현 사람이난. 쇠알베로
탁탁 묶으니. 곤는 말이,

"남산에 가서 동드레 벌은 솔나무 가지에 동동 돌아 매영 <XX> 못허게 묶
어 됴 이래 오라 블라."

'아 요거 돈 일생 벌어 논 거 백냥 뺏기고, 이젠 묶어그네 낭에 돌아맹 내
불커매 죽으레 내가 여기 와 저신가. 이거 죽을 팔자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날까지 종노릇만 허멍 못살았구나' 행 있는디 <XX> 묶어서 장정 다섯늬이
들어 매아져네 작대기 행 그 소낭에 가네 베 해낭 작 작 돌아매시른 혈 건디,

79) 소를 묶어 두는 밧줄. 가장 튼튼한 밧줄.

80) 아무리

說 話

드맹이⁸¹⁾가 거꾸로 발 먼저 올려 비었다 말이여. 경허니 발은 하늘로 가고 머리는 영 땅 아래로 되었는데 비도 오라 부난, 누구 살려드랜 혈 수가 있어. 남산 지금은 하영 살암주만은 옛날엔 남산에 가몬 귀신나고 사람이 <XX>헨디주. 적적헌 디주. 밥중 한시 두시 왜가니 하늘이 거뭇 거뭇허고 비가 요번이 마냥 장비가 백킬로여, 몇 킬로여 쳐 부서가. 하, 이거 비은 거는 관치 안헌디, 빗물이 코에 들어 가서. 그저 이 발로 내려 오는 비 끈 코래만 들어가요. 그래, 이 코가 막 빠지직 꼭 죽어지게 생겼어. 여기서 코에 물들엉 죽는 것보다도 부동키당⁸²⁾ 벨 그치나 뭐 해그네 죽어사캔. 막 부동쳐 가니 이것도 점쟁이가 잘 아는 쟁쟁인지 모르지만 그놈의 베가 막 부동쳐 가난에 어디로다 그차져그네⁸³⁾ 둥글둥글 손도 풀어지고 해네 둥글둥글 둥글었지. 남산이엔 헨디가 오십도 각도 되어. 이 동으로 가몬, 막 둥글어 둥글둥글 막 둥글어 가다네. 둥글어 가다네 어디 강 <XX> 다대기고, 드맹이나 까지고, 확 가슴 털어 정 허당보난, 어디레 탁 허게 의지허여. 탁 허게 의지행 둥글어가질 안허영. 알래레 봐래난 아직도 거봉(巨峰)이라. '야 저 알래레 둥글어 가시몬 캄캄 어두운 밤에 어디 깨정 죽을 건디 어덜 의지해 신고.'정신 출러네 영영 문직아⁸⁴⁾ 보니까니 귀트럼이엔 허몬 아느냐 니네. 귀트럼 영장⁸⁵⁾이라. 관자를 짜 가지고 영장을 그 소굽에 놓아서 이치력 현 큰 낭 알에 가서 봐서 여디 저 누람 질 친다. 비 안들게, 경헨당 좋은 택일(擇日) 반아그네 경헨다그네, 날 봐그네 그거 관을 앗다당⁸⁶⁾ 어디 강 좋은 터에 묻어주는 거 이서. 임시 귀트럼해서 날 보젠 놔둔 영장을 의지해서. 강 탁 행 보니 누람지도 있고, 비 의지가 되어. 비 의지되영 비나 덜 맞자 행 관자에 손을 대니 관 소굽으로

"아, 아으 살려 주시오. 살려 주시오."

보니 여자 소리라, 듣기에는.

"내가 귀트럼헨디 오랑 내가 의지해시니까니 이 소굽에 사람은 살아났다. 붉는 것만 봐야졌다. 붉아그네 이거 부수영 봐야켤."

81) 머리

82) 몸부림치다가

83) 끊어져서

84) 만져

85) 가매장

86) 가져다가

헐. 붉으난 불 봉강 그 관을 막 부서 가당 보니, 돌로도 헐센 장정 마흔 난
놈 두드려 가문 관이 부스러지주게. 이 두께가 열어지는가 행 보난 십팔세난
여자라. 굽닥헌 여자가

“아유, 아유.”

헐서. 아직한 살아시니까지 가슴에 손 대보난 맨도통허여.⁸⁷⁾ 탁 허게 업어아
정 주막집에 가서 <XX> 주막집에 가가지고 보난 할망만 살암시나네,

“할머니 이만 이만 해가지고 추운 사람이 있는데 좀 가마에나 숯에나 들허
영 맨도통허게 데와그네⁸⁸⁾ 큰 낭백새기⁸⁹⁾나 박새기에 떠 줘센. 살려사쿠덴.”

아, 경허난 할망도 물 데왕 경헐 물 떠다주나네 그디 낭 몸을 감겨줬잖아.⁹⁰⁾
살아나 그때부턴 숨을 쉬언. 방 하나 빌어네 누웠는데,

“이디 아프냐, 저디 아프냐.”

무스 것 먹지도 안허고 해 가니까니 혼 이삼일 이서 가난 정신 나. 경헐 여자
가 허는 말이,

“내가 전염병에 걸려 가지고 죽도 살도 안해 가지고 막 죽은 걸로 봐 가지
고 이젠 택일허젠 헐 관짚는 것까진 아는디 이디 왕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제는 살아시니까지 부모네 걱정허는 것이 의심스러우니까니 나 말대로 서울
강 연락을 해도랜.”

“어떻 연락허나?”

허난,

“서울 가문 김정승을 좇앙가는데 아무디 아무덜로 가가지고 김정승네 집 어
디세요. 허당 허당 버치건 단 아들에 단 풀인디 풀이 죽어네 어디 강 귀트럼
헌 집을 좇으민 좇아진덴.”

아, 그래서 서울 헐 수 어시 갔어. 가네 아 가보난 대감집이고 허니 문 배끗되
다가 문지기들이 막 창 가지고 사노난 대감은 만날 수가 이실 거라.

“꿔허래 왔나?”

“대감 만나캔.”

허난,

87) 적당히 따듯해. 미지근해.

88) 덥혀서

89) 나무 바가지

90) 몸을 씻어줬잖아.

說 話

"이놈의 주식이야, 대감은 요번이 딸 죽어 가지고 말이며, 지금 밥도 안 먹고 말이며, 한 매칠 말?를 정신이 어서. 너런 걸 만나나.

"아 경해도 만나야 허겠다."

고. 대감댁 내 봤단 말이며.

"그 말을 곱으켄, 대감댁 말을 곱으켄. 이제 살았다."

고. 아 정해 가지고 막 야단 허난, 대감이 변손가 어딘가 왔다가 그 소릴 들어 가지고

"무사 경했시닌?"

허난.

"이만 저만 해가지고 대감 만나고 죽은 애 일름은 잇어 부렸구나만은 그 딸이 어디서 만나고 살았다."

고 하니,

"아 거 안티로 물렌."

만나난 사실대로 얘기했어.

"이만 저만 허당 관 소굽에 의지해서 잇당 돌양"⁹¹⁾ 가서 주막에 강 몸 감지고 그디 재와그네 줄이 이만 저만 행 아버지 어머니 걱정된 생이라. 소식이나 전해동 오랜 허난 오라수덴."

허난 대감이 가마 찰리랜.

"거 정말입니까."

"정말이우덴."

행.

"가마 출령 강 줄 강 돌양오랜."

가마 출령 강 죽어가는 줄은 돌아 오고, 그 중도 좇아 오랐어. 계난에"⁹²⁾ 책방이.

"거 중을 어떻게 헐 건고?"

허니 돌하는 말이.

"뱃집에 방 하나 시메 거기서 멕이국 입지고 살리랜. 나 말 잇을 때?경 살림시랜."

91) 데리고

92) 그러니까

아 거기까 좋은 밭집에 방 하나에 사는데, 줄이 그러저럭 올라네 보약도 해
줘. 대감집이니까니 약도 좋은 거 해여. 음식도 좋은 거 해여 해가난 그자 어
이에 회복되어서 아주 또 미인이 되고 일름이 나가니까, 그때부터 큰집이선
집안에서 청가는 들어오는 거여. 메느리 구해가겐. 아 이거 메느리 메느리 헨
소문은 들었는데 그치록헨 살아 나시난 메느리 구허연,

“이디 가렌.” 해도

“마우다.”

“저디 가렌.” 해도

“마우다.”

노시 대감이 못허니까, 할망보고,

“어멍신디 잘 통할런지 모르니까 가그네 곶아보렌.”

“이 집에서 안가문 안되켤 그치록 헨 집에 안 가문 어떻허느니?” 해도

“안 가렌.”

“무사 안가켤 안 가쿠덴.”

“저 밭집이 사는 이가 날 살릴 때 가슴이고 젖통이고 벨디 다 만지어 봤는
데 어디 저 고운 마음으로 딴 집이 시집을 잡니겐.”

아 그래서 아싸리 말이여. 여자가 반박을 해브렸어. 새각시가. 아 경헨수덴
허난,

“야, 이거 큰일났다. 그 정도 됴시믄 이거 큰일났다고. 오죽 <XX 먹었을>
거냐.”고 해서

“또 강 들어 보렌.”

아, 그자 강 세 번이나 들어봐도

“시집 안가쿠덴. 그냥 죽으믄 죽었주. 아, 난 벌써 서방은 있지 안허켤. 나
살려준 사람. 암만 나이사 만허주만은⁹³⁾ 살려준 사람을 어떻 행 내버려둬그네
딴 디 가느냐고.”

아, 허다가 버치난 아들을 불러 가지고 대감이 의논을 했어.

“어떻허민 좋으크니, 저치록⁹⁴⁾ 험져.” 허난에

“밭집의 종을 어서 죽여볼겐.”

93) 많지만은

94) 저렇게

“아 죽여부렸젠 행 알민 가이가 또 죽을 건디 어떻 허느니. 그런 말 해가민 가이가 다 죽어갈 거 아냐”, 여자가.

서울 가면은 흥가가 있다. 흥가. 이 서울에도 흥가가 하나 있어. 그디서 귀신이 자주 나고 그디 들어가든 사람이 죽주.

“흥가가 하나 있는디, 그 흥가 지금 지어시매 그집을 <XX> 아무도 몰르게 사가지고, 느네 결혼을 행 들이 살크네?”⁹⁵⁾ 여기서선 곶이 못 살거고 그집으로 강 지네 집사도 대결이주. 그디 가그네 살크네? 해그네, 그 집 사그네 느네 들이 허건 어디 그디 가그네 죽음대로 살랜.” 허연

“보내주켤.” 허난.

아 경허난에 들이가 다 좋은 모냥이라. 새각시도 좋은 모냥이라.

그집을 산 호로⁹⁶⁾ 해가지고 그것도 찌주. 그집이 들어가든 그날 저녁 죽어 부는 거라. 계난 흥가에 강 죽인 거는 말 못허지만,

“우리가 어떻 행 죽여분 것사 죽었젠 행 말나민 여론이 나쁘니까니 흥가에 강 죽게시리 해볼켤.” 해네, 오라방이 흥가에 종을 붙렸어.

“흥가에 강 느네 살림 살 거니까니 그디 이 종 서너이 돌앙 가그네 청소하고 방 뒤으고 방 불르고 해 뒤그네 오라그네 허면은 누이는 그 다음날부터 학허게 살만이 되든 보내켤.”

허난에

“종수댄.”

해가지고, 아 요놈은 먼저 그만 몰랑 들어갔단 말이여. 죽젠. 아 들어가든, 그디 강 막 방소재허고 막 옆집에도 <XX> 큰집에 강) 이것 저저 호당보난 어 죽어부난 오라브렸어. 오라부니, 아 이거 널 붉아지든 새각시 오랑 여기서 곶이 살 건디. 밤중에 흥가에 집이 흥글어. 불이 번지번지. 촛불이 노민 벌렁벌렁. 난데 없는 바람이 심심 불곡허여. 그게 사람 죽어가는 근본이주. ‘에 이거 안되켤. 이거 북름이 무사 영 불고, 어떻 행 일기가 어떻 켜시니’ 해가지고 이문간이엔 현 디가 있주게. 이문간이 커. 이문간에 오란에 영 베갈디레 브라 보켤 허난, 이문간이 흥글흥글 하더니만은 외장창허게 이문간이 돌맹이 같은 게 알레레 떨어져. 두맹이 같은 디 어깨 같은 디 맞아그네 그 때 죽어부는 거

95) 살겠냐

96) 하루

여. 황당한 놈은. 이 사람은 죽도 안히고 정신도 안 잃고, 떨어진 거 뭐고
행 보난 금은 보배라. 돈으로, 금은이 막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 딴 사람은
금은이 떨어져 가쁜 죽어 부는 거라. 아, 계난 썰어매영 실어매영 허다보니 붉
았는데, 본가에선

“관 하나 아저가그네 영장 아무도 몰르게 대지에 강 묻어그네 어디레 묻어
동오라 불라.” 돌보고 경해네 그 흥가에 강 그만 이녀만 먼저 죽어 부러시네.
자연적으로 죽은 걸로 알 거 아니냐. 행 강보니까 중 서너개가 관 하나 아정
가가니 중놈이 금이랑 피아놉가명

“어이 잘 왓져. 재기오라. 재기오라. 놓을 거 어성 허당보난.”
관디레 걸 댜 좃어놉, 문딱 좃어놉. 좃어네, 죽지 안허꼭 해시니 중들은 어이
도 없고, 이상도 허고 해가지고 가서 돌아강 곶아 부러어.

“이만 저만 해서 강 보난 죽음이랑 마랑 금은 보배 피와놉 가지고 관 빼어
네 그래 문 담아놉똥 두께더꺼네 그디 낫 오라부러수덴.”

“그 이상허다 이.”

그게 알고 보면은 그 집에 옛날에 워낙 부자가 살았는디 난리나가지고 위험
해 가니 금은보배를 이문간 천장위에 강 문묻어본 모양이 아니. 이게, 금은
보배도 한이 되가지고, 활동을 못허른 경 요란헌 덴. 나오랑 세상에 오랑 세
력을 쓰고 빛을 비추었다고, 경 혈 통에 집이 흥글흥글해가문 딴 사람들이 문
겁냥 죽어부러. 전디 이 놈은 죽지 안했는디, 거쁜 할 수 없다고 말이며, 안
죽어시니까니, 그게 대감이 생각한 거여. ‘이게 금은보배가 난리를 내와 가지
고 그렇게 나오랑 세상에 빛을 배우젠 허니 딴 사람들은 가쁜 죽고, 죽고 허
난 흥가로 했구나.’ 해가지고

“애이 죽을 고비 넘어시니까 혈 수 어시 풀이영 보내볼렌.”

그디 강 보내영 살림 사난 잘 사는디 금은 보배가 하고 돈이 하노니 중놈이교
무식해노니 열 여덟 살 난 것이 장계 가난 열 아홉은 되가난 방 꾸며 가지고
이방 저방 해가지고 공불시키켄 글방 선생을 하나 돌아다 놉서 공불시키는 거
라. 돈이 워낙 금이 하노난. 하늘 천 따지. 읽어 가는디 천자, 동몽선습, 소
학, 시전 다 읽어 가는데, 오지 말랜 해도 자꾸 쳐녀신디 오라. 경허민 나 안
살앙 게쁜 다시 안오켄, 가볼켄. 아무 책 다 안 읽으면 나 만나레 오지 말랜
해그네, 호호 달래는 것이 거기서 현 삼년을 공부해 가지고 그렇게 허니, 돈
은 워낙 많고 워허니,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주. 이제랑 돈을 씬을 배우라

說 話

고 말이여. 금은 있는 거 공분 그만 허른 씨 먹을 만이 되신게, 이제 돈을 쓰길 배우리고. 이제 혼 전대 주고 이 돈 강 써오랜 헐. 저물앙 서울 장안에 강 돌아댕기당 돈 한푼도 안 썩 그냥 아경와서. 아 무사 돈 얼마나 썩 왔냐고. 한 푼도 안 썩젠. 아, 이거 사먹젠 해도 아깝고, 저거 사먹젠 해도 아깝고. 경헐 점심도 굶영 오고랜. 애, 그 안되켤, 계난 또 작시가 2트치는 거주. 아무덜로 아무디 가 보면은 유생, 지금같은 대학생들 막 땡기는 디 허는디. 서울 가른 지금같은 무계동인가 무신 거 번창헌디 신데 그디 강 노름판도 허고 놀고 몰타고 활쏘고 허는디 그디 가그네 놀고 그 값도 느가 막 당해 주라고, 당신이 막 당해 주고 말이야. 해가른 소문이 나그네 돈 쓰게될 거 아니넌. 아 경해 가지고 첫날 가서 그디 좇아 강 보난 활쓴 값, 몰탄 값, 내사 내켤 행 막 해가난 <XX> 해가는 게 그럭 저럭 혼 열흘 되가난 친구들이 막 소문들고 막 모아 들어와. 온 건 문 입장료 문 내는 거라. 그 종이 내가 난애, 친구가 한디 지도 강 보난 개니, 그 햄직헌 거 활 쏘는 거 말 타는 거 그게 젤 알아져 가난 몰 타는 것을 거기서 잘 해가지고 무관 따부렸어요. 무관 따가지고 무관복 각시영 다해 췌다가, 또 무슨 난리라 일어 나니까난 대감헌티고한 모양이라 우리 남편 무관 과거행 이수덴. 어디 혼 번 <XX디래> 씨 즐센. 조정디래 연락해 가지고 헐 오랑 시험해 보니까니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니 그게 이축생이가 돈암동 동문을 지켜 가지고 그 난을 수집했다고 허는 사람이라. 한재로 거, 쇠 축자, 날 생자. 이 축생이랜.

10. 여우이야기 1

제 보 자 : 강태현(남·71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88번지

글방이 있었는데, 한문 글방이주게. 옛날엔 한문. 밤이강 한문들 읽어. 한문 읽는다. 이제같이 후라쉬가 이서. 그 땐 팻볼이문 대, 대 비어 가지고 책

몰아그네 강 불 비청 집에 들어오는 거이. 그 때는 다 항상 한 사람이 하나씩
아정 가주게. 밤이 돌아올 때.

젠디 그날 저녁 스장, 글방 스장이 제사라. 일가에 제사니까, 저 제자들,
생도들한테

“이제른 나 제사보래 갈 거매 공부들 허다가 말이어. 다 여기 조용조용히
누워 자라.”

고 말이어. 그디 젤 죽은 아이 다섯 살인가 일곱 살인가 난 아이 젤 죽은 아
이가 있어. 딴 사람들은 열 여덟, 스물도 나고 열 다섯도 나고 헌디 막 죽은
아이가 하나 이서. 이만이, 죽은 아이가 하나 이서. 누워들어서 글 읽는 생강
이 생각해가멍 느시 눈에 잠을 안 오는데, 이시니까니, 아 신벗는 디로 하나,
들, 셋, 넷 세는 소리가 나. 무사 쟈신고 가만이 시른 자기네 누운디 오랑 하
나 들 셋 넷 베려 가니 야인 곱아서, 무서와서 역은 아이 강알이레, 그덜레
강 누워비였던 말이어. 신은 열겐디 아이는 아홉개밖엔 없단 말이어. 여덟살
난 아이가 요망진 아이주.

또 베꿏되레 강 하나 들 신을 세보문 열겐디 안에 들어 왕 보민 아홉개밖이
없어. 아 이거 안되겠다고 아 어땜 허는가 보니 그 힘으로 해볼 순 있어. 헌
디, 그게 여헌디 오랑 아홉 놈 문 간 내가 부렸어. 건디 가이는 안냈단 말이
여. 강알에 곱아부난. 가인 안 내난 살았거든. 이거 벨 스장허고 동네 사람
알른 날라 죽엿덴 헐 건디 죽으나 사나 이 핵신을 해야켄 해가지고 여우 가
븐디 확 나오라 가지고 뽕 싸는 걸 델 싸가지고 여우 저만이 가가지고 못봐질
만 해가민 대 하나 꽃으고 또 가당 대 하나 꽃이고 가당 대 하나 꽃이고. 들
리레 나가서 보니 큰 머귀나무라고 있어. 할망들 부인 죽어가지고 그차가지고
방장 때와난 머귀나무 두 안음한 머귀나무. 그 머기남 있는 밭이레 통허게 허
더니만 어디 간 증 몰라. 어디 간 증도 모르고 허니 헐 수 어시 이 깎지 오라
가지고 좃앙 왔는데 뭘 하구나 해가지고 집이 돌아왔지. 뒷날은 붉으니 야단
이야. 아홉 놈은 다 간 내쳐서 죽엿고 요 아인 살았는디, 아이가 허는 말이
아맹해도 여희놈이 이거 머기남 있으니까니 <숨어 XX> 이 동네서 사냥 젤

說 話

잘 하는 시키는 잘 듣는 대. 개는 앞인 여희가 진다고 허네. 근디 개 돌아옴
센 헨 개 두어 개 들고 해내 좇아 갔어요. 아이가 절로 가다가 안 보일만 허
른 대 하나 꽃이고 꽃이고 허명 그 여희 여름엔 막 좇아 가신게 그덜 가그네
머기낭 조사하고 개 <XX 바위강> 숨켰다그네 머기낭부터 여희 나오문 죽여
가지고 물계시리 허곡 허라. 그런 수단백기 어수덴 행.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영 동원해 가정 머기낭 신 쯤에 강보니 머기낭이 구녕이 뚫어져서 이만허게.
그치젠 막 직어 가니 아 글로 여희가 사름으로 변신행 나와서. 아 동파리도
아이 오는 디 어명 행들 여기들 와가지고 이 낭을 직업수젠. 막 지랄해 가니,
그 때 개가 우리 사람 눈에 개 안 멜아 가시믄 그 때도 또 안될 뻔 했어. 우리
사람눈엔 사람으로 보이는 디 개 눈에 그제 사람으로, 97) 여자로 98) 뽕뽕단 말이
여.

개가 봐서 그걸 물어 가지고 죽인 걸 보니, 여희라. 그 안에 아홉 간 다 문
영이섰덴, 여희가. 다 합동으로 물어 가지고 해난 게 하효엔 그런 말이 있어.

11. 여우이야기 2

제 보 자 : 강태현(남·71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88번지

서당에 땡기는디 아이 하나가 건강헌 아인디 시퍼렁헌 얼굴이 촛촛 약해가
니 선생이 이상허다 해가지고 가이안테 물어봤어. 너 어명허냐. 어명 안행수
덴. 서당에 올 때나 갈 때나 질레서 누게 만나거나 뭐 해난 거 이시면은 바른
대로 풀아사주, 들이 갈 뻔 안헌디 지기 혼자만 갈 때는 어떤 고운 여자가 나

97) 구연자의 실수. '여우로'가 옳다.

98) 주 97)과 같음.

은덴. 나오라 가지고 방울, 구슬이지. 지집디레 주고 지허곡 먹으랜. 밖아그네 주젠 허른 ㅎ곡 삼기젠 허르는 막 발로 빼암 때리고 몸 끌어부덴. 그런 일이 몇번이수덴. 아 그게 난리구나. 그게 여회안테 흘러가지고 야이 주연히 죽게시리 만들어 가지고 죽으민 간이라도 빠덕젠 행구나. 스장이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다음에랑에그네 가당 그런 거 봐지건 굿고 죽고 구실 주저들랑 음 짝허게 숨져블랜. 습지명 땅 브리곡 저리 브리고 해그네 바리명 바리명 영영 영영 브리명 습져블라고. 경해사 허주, 경 안허른 느가 공부도 못허고 죽어블꺼엔. 꼭 잊어블지 말앙 허렌 허여.

아, 이젠 맹심해서 그말들영 어느 때 지 혼자만 가노랜 허난 그렇게 오라 가지고 구실을 쥐 가지고 이거 먹으라, 물라하명. 할라뵤 날 도라 혈 꺼리에 꿈을 막 되왔다가, 주난 확허게 들러 먹으면서 땅 보고 <뵤 XX> 먹리서 사름만 봐졌단 말이여. 사름만 봐져부니까니 느려가부난 여회 혈 수 이서게. 빼앗도 못허고 금방 죽이진 못허고 아 경해부난, 사름만 봐네 오라분디 그게 크니까 의원질을 경 잘 헤여서 어떻게 의원질을 잘 허는지 창질 곱은 거 사름에 대한 건 뵤 요디 무신거 싯젠 현 거 다 알아. 그 영 보민 안경으로 어디 엑스레이 찍는 거보다도 더 알아가니까, 소문이 났는다. 글방 가당 오다 막 소문 나난 절로 저 의원오람져. 느 죽은 추록 해그네 업더져 보라. 무신거엔 곱느니. 막 <XX>를 허는 거라. 나 아나, 느가 탁 허게시리 업더져그네 죽은추록 행 빨리 업더져그네 이시문 야이 죽어신게. 어멍 고청 봐줍센 고르켄 행. 아 경해그난 의원이 절로 이래 오는 것 답으난 그 모양으로 지랄덜을 해노난 아 이가 문 탁허게시리 자빠지는 바람에 어디 돌 코짱헌디레 강 어디사 질러부러 싯고라. 진자로 죽어부렸어요. 아이고, 의원이 오라가고 허난, 의원이 오랑보난 아 이거 큰일났구나, 야이. 침 꺼내더니만은 간을 영 해서 췌어가지고 영 불이니까네 그 뻔 살아네 말을 곱아랜. 애들 장난헤네 영해부난, 간 털어정 못허켄 침으로 간 털어진 건 요레 앳다당 영영 불여그네 말 곱게 해뵤그네 침 빠부난 떼어정 죽어부렸구만은. 그치록 현 의원이 이서났다고 해.

12. 개와 고양이

제 보 자 : 강창현 (남 · 64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619번지

옛날 대감집에서 쌀밥으로 고양이하고 개를 멕이면서, 길러고. 아강준가 용이 무슨 구슬 뭐 있잖습니까. 대감집에 있어그네 그걸 도난당해가지고, 그 다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개들이 밥도 아이 주고,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걸으면 저 섬처럼, 물 떨어진 모냥이라. 육지겠지 아마. 육진지 모르지만 하여튼 옛말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말고 구슬을 가서 이제 찾아 오면은 용왕인가 어디가서 찾아 오면은 잘 대우한다. 이렇게 하니까 개하고 고양이 하고, 구슬을 찾으러 갔는데, 가 가지고 구슬을 어떻게 훔쳐내어 가지고, 개는 혜엄을 잘 치기 때문에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해가지고 개 우에 업혀 가지고 혜엄쳐 오는다. 개가 자꾸 오면서 고양이 보고 구슬 너 물었다 허면 고양이는 이걸 물었기 때문에 대답 못하니까 입속으로 음음 대답했거든. 자꾸 개는 오면서 바당을 건넌 오는다 자꾸 이제 물었다 하면 음음 대답허멍 해 오는다 하도 자주 이제 물어가니까 그렇게 자주 묻지 안해도 잘 물었으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 허는 식으로 말 헐려고 어떻게 입을 벌렸드니, 구슬이 바당 한 가운데서 물리 빠져부렀어. 빠져부니까 잃어부렀어. 고양이가 거기서 잃어부렀다고 하면은 내볼면은 자기가 죽어질 거니까 잃어부렀지만 개가 자꾸 고양이한테 물으론 웅웅 허멍 2애까지 왔는데 개는 고양이 보고 구슬 이제 내노라 허니까 너 자꾸 이제 그렇게 구슬 물었다, 물었다 허니까 웅웅 대답허당 자꾸 묻지 안해도 잘 물었으니까 다시 묻지 말렌 이렇게 말 허젠 허는디 그만 허난 이제 떨어져 부노랜 허니까, 허난 그 때 개는 화나 가지고 고양이 물려고 확 하니까 고양이는 확허멍 도망쳤거든. 개난 지금도 그것이 농담인지 뭐 헐 말

이지만 지금도 보는 개하고 고양이는 하여튼 봐져가든 막 개 이제 물젠 허븐
고양이는 담 있는 낭 우의 올라 가지고 막 서로 확확허멍 싸우는 모습이 보이
는디, 그 육지선 나온 말인지 하여튼 그 말은 들엉 보니까 꾸며낸 말이지만을
개하고 고양이 허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좀 비슷해 보니까 그런가.

13. 변인태 2

제 보 자 : 강창현 (남 · 64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619번지

옛날에 아까도 말했지마는 일본 해적들이 자주 침범하니 옛날엔 지금보다
도 군기나 똥이 더 엄했던 모양이라. 옛날에 보목리서 일본 배가 침범허고 있
다 허면은 이것을 전통이엔 해 가지고 서귀포가 경찰서 이시든 글로 전화도
없고 허기 때문에 인편으로 빨리, 전령이주, 전령, 통보허게 되는데 그 분이
가다가 서귀포로 가다가 어디 중간에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다,
죽어 가지고 머리가 저 서쪽 서귀포 쪽으로 향해 가지고 엎드려 겹으면은 아,
이건 그래도 명령을 준수허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잘 뭐 해주고, 만약에 어떻
게 해서 이쪽 반대 쪽으로 머리가 돌아져 가지고 죽었다 허면은 이거는 도망
가다가 거역해가지고 죽었다해가지고 그거는 아주 그런 벌도 받고 했던 모양
인다. 변인태라 헌 분이 거짓말도 잘 허고 농을 아주 상당히 능란허게시리 뭐
어떻게 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다 밧되들 조 검질
들, 조라고 허는 걸 갈아 가지고 놉⁹⁹⁾들을 혼 스무 사름, 한 섬에치 쓸을 밤
을 해 가지고 놉 빌어서 점심으로 점심 때 먹꼭 허거든. 큰 밧에 검질을 매는
데, 노래들 부르면서 검질을 매는데 일꾼들 중에서, 길 옆엿 밧인 모양이라,

99) 일꾼

說 話

아마. 절로 저 뺑인태엔 현 분 지나가니까,

“아, 저디 저 뺑인태 감져. 저 한번 우시개나 한번 해똥.”

잘 현덴 허니까. 소문이 났거든. 자 허게 난. 허니까 우스개나 한 마디 해도 그네 가랜 허젠 허명 그디서 말이 나 가지고 뺑인태가 지나가는다.

“아, 뺑인태 아저씨. 하나 우스개나 좀 해똥 감췌.”

해 똥 가랜 졸르니까 뺑인태 허는 말이 뭐엔 말허느냐 허든.

“아고, 이 자주망네 나 어느 제 우시개 헐 저틀이랑 마랑 지금 저디…….”
지금 옛날 같으민 폭도라. 막 무서운 배,

“일본 배들 막 들어온다.”

고 왜구. 요새 같으민 북한 간첩이엔 헐 건가.

“지금 적군이 막 들어와서 그거 알리레 지금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그자 가부렀거든. 그말 들으니까 난리거든. 옛날 스삼 사건 때 겪어보지 안허니까 모르지만 스삼 사건 때 폭도왕젠만 허든 디레 돌아와볼고 헐 때가 이섯주게.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정 왜군들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나 그거 전달허레 하는 중이라고 말이지. 농담할 새가 없다 이렇게 행 가브니까. 아 이분들은 이걸 진정으로 알아 가지고 정심 한 섬에치 싸와난 밥도 내볼고 이제 막 막 도망와 비였거든. 오랑 들어 보니까 이거 번쩍 거짓말이주게. 그러니까 다음 만나 가지고,

“아, 이 아주방 사람 겁나 가지고 말이지. 왜 그렇게 겁내왔냐?”

허니까,

“아 무사 우시개 거짓말 해똥 한 곡 허랜 안헐.” 덴.

서귀진 그 뭐엔 험니까. 방어산가 서귀진에 있는 조방장이 요새 같으민 전령 비서식으로 보좌 영 심부름허곡 허는디 고기를 어떻게 허냐든, 반찬 조방장 허면은 식사당번 행 식사도 해주고 고기를 꺾그네 반찬도 올려주고 허는디, 요것도 거짓말이주게. 꺾 꺾부려 가지고 고기를 굽는디 막 카불게 먹지 못허게 꺾 갔거든. 불러 가지고, 제략이 있어서 그건디, 불에 타게 시리 구웁 아정가니까 허니까 앓다그네 버리나 뭐 해볼라 허니까니 앓당 이제 똥 먹고.

카게 허난에,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든 그자 고기 <XXX> 먼디서 볼만 <XXX> 해서 가져갔거든. 이러니까 또 불러 가지고 어디 고길 구웠느냐고 저번이 탕겐 허니까 이젠 못 먹으니까 지냥으로 된 먹고 이렇게 경 혈대로 청 개구리 식으로 영 허라민 반대로만 해 가지고 피가 재미, 능란헌 분이랴덴.

14. 당 모시게 된 유래

제 보 자 : 강창현(남·64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619번지

당 모시게 된 유래데, 여기서 바당에 어로 작업을 가는데 동서 셋인가 해 가지고 먼 바당에 가는데 태풍 만나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격인디. 외눈백이 땅에 표류되었던 모냥이라. 그 어부가 외눈박이 땅에 표류되었는데 남양(南洋)의 어디 외눈백이 땅이 식인종들이 있젠 허니까 사람고기 먹는 저 남양 어디 표류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디. 그 외눈백이 땅이 여기서 말허문 외눈백이 땅이엔 허는디 외눈이엔 현 건 눈 하나 가진 거주계. 외눈이난 어디 요디사 박아졌는지 어디사 박아졌는디. 땅에 표류되었는디 거기 가 보니까 집주인을 정하는디. 땅에 표류되었는디 거기 가 보니까 집주인을 정하는디 표류되어 가지고 배는 포구에 매고, 굶고 허니까게 밥이라도 얻어먹꼭 허겐 집에 주인을 정하는디.

“이렇게 되가지고 표류되어 가지고 왔는디 좀 밥이라도 해 달라.”

고 허니까,

“아. 어서 들어 오라.”

고, 남잔 어섯고 여자만 있었는데 밤에 아왔는디 그 방에 강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사람 들어오는 소리가 두벅 두벅 발자국이 나거든. 허니까 무슨 소

說 話

린가 해가지고 귀 <XX> 가지고 들어 보니까 남자가 들어 오면서,

“아, 오늘은 재수 어성 사냥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 허난에 부인 허는 말은,

“아이, 난 2만이¹⁰⁰ 않아도 사냥 세 개나 헐게.”

그 말 들어보니까 외국하고 말 통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전해 오는 말이 그렇게 허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서 생각해 보는 건디 2만이 않아도 사냥을 세 개 했다 혼 거는 <XXX> 사람이 세명 갔으니까 사냥 세 개 했단 말이고 재수 어성 못했다고, 그디서 조금 눈치빠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수상하다.”

고, “도망가자.”

고 해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막 가다 보니까 높은 언덕에 백하르방이 탁 허게 앉아 있어 가지고 있으니까,

“아, 어떻게 표류되었 은 사람인디 살려 달라.”

고 이렇게 허니까 그디 강 언덕 아래 어디 숨었는디 어디 왕돌 밑으로 2르치 명,

“그기 들어가라.”

허니까, 그 뒤에 개 돌고 해가지고

“사람 세 사람 안 지나갔냐.”

고, 그 할으방안티 물었덴, 물으니까 할아버지는, 이디 있지만은

“저 다른 방향으로 저래 갔다.”

고 거짓말…… 저래 가부니까 그 하르방은

“빨리 나오라그네 타고 온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고향 가가지고 물에 육지에 올라가기 전에라그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무말도 말고 그대로 가라.”

이렇게 지시했던 모양이라, 경허니까

“그렇게 허겠다.”

고는 했지만은 고향 이디 들어와 가지고, 포구 바로 바닥 옆에 와지니까 아

100) 가만허

이젠 안심해 가지고,

“아. 그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졌다.”

고 말이지. 허니까 또 파도가 쳐 가지고 역시 또 그곳에 표류(漂流) 당행 간 모양이라. 가서 백하르바지가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허드냐.”

허면서 어떤 말에 들으민 그 할아버지가 같이 오니까 그 할아버지를 모셨다 이런 말도 있고, 그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지니까 그 할아버지를 숭배허겐 헤여서 저기 당팃이엔 허는디 당을 모셔가지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잇는다. 그건 저 쪽에 살던 사람인디.

信 仰

목 차

- | | |
|----------|-----------|
| I. 개관 | III. 공인종교 |
| II. 민간신앙 | IV. 맺음말 |

I. 개 관

보목리에는 공인종교 시설로 보목교회가 있고 원광사와 혜관정사라는 절이 있다. 민간신앙으로는 유식부락제인 포제와 무속부락신앙인 조노케당, 오드렛당, 신남밀할망당이 있으며 유식과 무식이 혼합된 수신제가 있다.

이 마을은 대체로 무속부락신앙인 조노케당의 세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조노케당의 제일에는 외지에 나간 주민들,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일부러 찾아온다고 한다. 포제와 수신제가 오늘날까지 굳게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종교와 별다른 마찰이 없다. 특히 보목교회는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의 협조도 잘되는 편이다.

이외에도 개인신앙으로 선왕제가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거기까지는 미처 조사를 하지 못했다. 당본풀이 또한 조사하지 못해서 진성기의 「남국의 무가」(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에서 발췌하였다.

II. 민 간 신 앙

1. 정포제

유식부락제인 정포제는 1년동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인데 보목리에서는 마을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 1) 제명 : 정포제
- 2) 제신 : 포제지신
- 3) 제일 : 정월 정묘일 자시
- 4) 祭費

— 집집마다 최하 2~3천원에서부터 성의껏 부담한다.

— 교인들은 부담하지 않는다.

- 5) 제물 : 쌀(일반미, 잡쌀), 검은 조, 누른 조, 쇠고기, 魚髓 날 것 3개, 마른 것 3개, 표백(청, 홍, 백), 꽃감 3고지, 명태 3마리, 미나리, 무우, 숫검은 돼지

6) 준비과정 및 제차

(1) 운영위원회 조직

8~10통의 통장과 청년회장, 노인회장, 신헌장, 어촌계장, 영농회장, 부인회장, 해녀회장 등의 자생단체장이 운영위원이 되며, 이 운영위원회는 정포제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간다.

(2) 제관 선정

예전에는 부락총회에서 정했으나 근래에는 통장이 웃어른을 찾아가 부탁드리고 있다. 그 기준은 65~70세의 남자이다. 또한 그해 결혼한 남자는, 부락제 제관을 지내고 나서야 자기집에서도 제관자격이 주어진다 하여, 반드시 제관이 되어야 한다.

제관의 직명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信 仰

初獻官: 제관 중 으뜸가는 제관이며, 처음 폐백과 잔을 신위께 드린다.

亞獻官: 두번째 잔을 드린다.

終獻官: 세번째 잔을 드린다.

典祠官: 모든 제물과 희생을 구입한다.

執 禮: 흥기를 낭독하고 정포제 거행을 총지휘한다. 제물을 전사관과 함께 진설한다.

大 祝: 폐백과 축문을 초헌관에게 드리고 축을 고하며 나중에 焚幣, 焚祝을 행한다.

贊 者: 제사를 거행할 때 笏記에 의하여 '拜'를 부른다.

贊 引: 제사를 거행할 때 笏記에 의하여 '興'을 네번 부른다.

闕 者: 헌관을 위시하여 각 제관을 안내한다.

率 香: 향로에 향을 피운다.

率 爐: 향로에 불망글을 말한다.

奠 酌: 잔에 재주를 따른다.

獻 酌: 잔을 헌관에 드린 후 잔을 다시 받아 신위께 올린다.

司 樽: 祭酒를 책임 관리한다.

掌牲令: 祭所에 갈 때, 犧牲(돼지)을 운반한다.

飯 監: 메밥을 지을 적에 취반과 함께 도우며 감시한다.

炊 飯: 제소에 가서 신위께 올릴 稻標黍稷 메밥을 짓는다.

鄒 色: 옛적에는 마을 소사를 칭한다.

(3) 재제

개고기틀 금하며 금줄을 치고 3박4일간 제청에서 합숙에 들어간다. 전에는 포제동산 모퉁이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한 집을 정한다.

(4) 제사

저녁 9시경에 마을을 출발해서 포제동산에 도착하여 10시쯤에 진설하고 자시에 제물 시작한다.

(5) 음복

제관들이 먹고, 남은 것은 제관끼리 나누어 갖는다.

(6) 제장

혜관정사 동쪽에 위치한 포제동산에서 지낸다.

(7) 축문

維

歲次○○正月○○朔○○日○○甫木洞民 代表初獻官幼學○○○

敢昭告于

醜神之靈伏以赫赫靈鎮我一域凡此生民賴彼休德令伏吉日敢竭菲薄伏惟神明
庶歆斯格兩順風調百果豐登漁採無恙生計安定防災除厄交通安全學業成就立身
揚名使我老少咸德其樂於萬斯年寧忘其澤謹以牲幣禮庶品式陳明薦 尚
饗

(8) 흥기

正舖祭券記¹⁾

醜祭儀

執禮贊者謁者皆無通謁四拜盥手各就位，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謁者
引祝及諸執事入，就壇南拜位，四拜鞠躬拜，興，詣盥洗位 盥手各就位，謁者
進初獻官之左，白有可禮具請行事，四拜禮，在位者及獻官皆四拜，鞠躬拜，
興，平身，行奠幣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手，執笏，引
諸神位前北向跪搯笏，三上香，獻幣，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爵獻
禮，謁者引初獻官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獻酌，執笏，俯伏
興小退跪，搯笏，祝以進神位之右，東向跪，獻官以下諸執事俯伏讀祝興平身引
降復位，行亞獻官之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手，執
笏，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酌，執笏，俯伏興平身
引降復位，行終獻官之禮，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手，執
笏，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酌，執笏，俯伏，興平
身，引降復位四拜，獻官皆四拜，鞠躬拜，興平身，飲福受酢，執事者，持俎進
坎神位，前胙肉，以爵酌福酒，謁者引初獻官，陞詣神位前飲福位，西向，搯
笏，執事者北向立，以爵授獻官，獻官受爵，飲率爵，以爵授執事者，執事者受
虛爵，執事者，以俎授獻官受俎，飲胙肉，以俎授執事者，執事者受俎，降自東

1) 제물단자까지 원문 그대로 실었다.

信 仰

階出門，執笏，俯伏與平身引降復位，徹籩豆，四拜，在位者及獻官皆四拜，鞠躬拜，興，平身，望燎位，祝以入篚取祝板及幣毛血於，降自西階置於坎，鬻者引初獻官詣望燎位，西向立，焚幣，蓋燎，鬻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門，鬻者引祝及諸執事俱就壇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鞠躬拜，與平身諸執事以北出門

神位

黍 稻
稷 粱

魚 鹿 魚 鹿
醢 醢 醢 醢

糝 牲
荊 醢

燕 燕 乾 栗
涇 涇 俎 柿 黃

幣

篚

燭 燭

爐 香

爵 爵 爵

坩 祝 樽

祭物單字²⁾

稻米	三升	菁菹	一升
櫟米	三升	芹菹	一升
黍米	三升	栗黃	一升
稷米	三升	荊醢	一升
酒米	一斗	幣帛	三匹
麴子	四升	香	一封
鹿脯	三脰	燭	二柄
鹿醢	三升	黃箬 ³⁾	一柄
魚脯	三脰	眞墨	一丁
魚醢	三升	犧牲	

2. 조노궤당

1) 당명 : 조노궤당

2) 제일 : 11월14일, 1월12일, 2월12일

3) 위치 : 처음에는 절오름 동쪽에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정술넷가 다리 건너 동굴로 옮겼다.

4) 제물 : 양단 석자, 맹쇠, 종이(백지) 석장, 지전, 초 2, 생꼬, 메, 바다고기 2, 과일, 떡(시루떡, 들레떡)

5) 제의 집행자 : 대대로 고씨집안에서 매킨심방을 했다. 지금은 그집 며느리가 매킨심방을 하고 있다.

6) 본풀이

조노궤 한집이 솟아나긴 할로영산 솟아났수다. 솟아날 적이 안음궤득 금책, 좁이 궤득 서문, 일천장의 배릿돌, 상단골에 상달문세, 중단골에 중별문세, 하단궤에 해궤문세, 저승 장오궤, 이승 오궤일통 촛지훈 보름옷도.

2) '單子'라고 해야 옳다.

3) '箬'자를 이렇게 썼다.

信 仰

산 쇠털 육절입언 문대단 안을 받쳐, 미남쌀 오니 주근 물려, 한번을 털도 리면 삼천 굴맹이가 도 느려오고, 이제는 제완지 허리에 좌정하였더니 침침하고 야심하여 결영소 낙인판 놓아서 보니 칠오름 상봉오지에 청지애, 백지애, 황지애 치여 좌정호니 삼신전 삼백관이 좌정하여 이제는 바둑 장귀를 두어 예촌 삼신백관은 성남국으로 캐추치고 조죽잇한집은 아시국으로 추치고, 이젠 조죽잇 한집 처씨를 토평서웃동네 허씨 과무집이 경주인을 잡았더니 피기를 찢삭 먹고 편 상룻통에 기여돌인 보니 되야지가 공배겔 배와 용좁을 자고 이서, 갱맹지를 손에 잡아죄고 함문으로 손을 드리몰아 간내식 식 양의식식을 빼어먹어 부정하고 서정하고, 경호연 이시단 ㅁ 룬웃도가 조죽잇 한 집이 그 울래에 갔더니 편경내 나고 야광내 나서 "이게 어떤 일이냐?" 하니 "피기를 먹고편 이만저만 하게 편경내가 납니다." "경호민 우리 붉은 도광 혼디 살 수가 엇이니 막동골로 좌정하라. 좌정하여서 상단궐에 상백문세 받아서, 삼잔 모깃잔 비단 괴단 침단을 받아라. 이역가 속대전을 받아라. 느리목 산쟁이 오리목 산쟁이 불산쟁이 온설단설 받아 먹어라." 이제는 한집이 돈로서 신임신증또 말젯풀애기 후처를 삼아서 신호 당팓 좌정하여서 "아지민 매값내 사민 냇내 나 추점하다. 개 돼가지 밭 셋인 물이 이시니 추점하다." 이제 제지기 뒤에 새가름을 오라 좌정하였더니, 제지기 동년편 당팔제 무어 제 닭아 당집을 지었더니, 한집이 거기 좌정하여 개문년(갑인년) 승년에 얻어먹는 개와시가 당기다가 당집이 불 지더비여 한집이 간 디 온 디 물라서 교씨 할오방이 불러다가 마을에서 삼드렛상을 받아서 상청드릴 매여서 정신의 지남석 결령쇠 낙인판을 놓며 올라가더니 이제는 조죽이 냇창에 가서, 거기 갔더니, 한집이 조죽이께 좌정하여, 이제는 상단궐 중단궐 하단궐에 제명을 받으며 누만년을 상을 받습니다.

7) 금기

— 돼지고기는 당에 가기 3일전부터 먹어서는 안된다. 당 주위의 나무도 합부로 베어서는 안된다.

— 고씨집안 작은 며느리가 정포제 지낸 후 돼지고기 먹고 당에 다녀와서 죽사했다는 이야기와 일제시대 때 누군가가 당 주위의 나무에 손을 댔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8) 기타

— 제일 외에도 의방나갈 때나 대입 시험치를 때, 취직할 때등 주민들이

꼬박꼬박 찾는다고 한다.

— 운수가 좋지 않을 때는 닭 한마리를 가지고 가기도 한다.

— 교인만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조노케당의 효험을 믿고 있어서 제일에는 젊은 세대부터 노인층까지는 물론, 일본에서도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3. 으드렛당

으드렛당은 주로 잠수일, 뱃길이 안전하고 잘되게 빌 때 또는 뱀을 죽이거나 해서 액땀을 할 때 찾는다.

1) 제신 : 요왕대신

2) 제일 : 매월 사흘, 여드렛날

3) 제물 : 메 2, 바닷고기제숙, 삶은 계란 3, 술, 밤 산 종이(지), 과일, 생쌀

4) 금기 : 돼지고기, 개고기

5) 본풀이

할망 할으방으로 위하는 배염본초 한집. 주손에서 배염을 도리면 한집에서 트집반양 상을 반곡. 아이들에 부스럼지 나민 이 당에 왕 빌민 치료하여 줍니다.

6) 기타

— 제는 유식으로 지내며 제 지낸 후에 저물드린다.

— 크게 빌 때는 심방을 데려가기도 한다.

— 다 끝난 후 생쌀집기를 하는데 4,6,8 등 짝수로 집으면 소망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4. 신남밀할망당

아이들이 병이나 부스럼 났을 때, 객지에 나갈 때 주로 찾는다.

信 仰

- 1) 제신 : 신남밀할망
- 2) 제물 : 메 2, 바닷고기 1, 술, 과일, 종이 석장, 지전, 맹쇠
- 3) 제일 : 매월 사흘, 일렛날
- 4) 본풀이

신남밀 할망이 거기 좌정지난 개할망, 개할으방, 돈지할망, 가는선간 오는 선간을 재명올 받아 인도를 흠니다.

5) 기타

특히 부스럼난 데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 허물난 데 계란으로 문지르면서 빌면 다음날 당장 낫는다고 한다.

5. 수신제

유식과 무식이 어우러진 수신제는 바다에서의 안녕과 해산물의 풍성을 기원하는 제사이다. 해마다 치러지는데 어떤 해는 여러날 계속될 때도 있다.

1) 제신 : 요왕신, 요왕대신

2) 제장

- 개말, 포구

- 비올 때는 해너 탈의장에서 지내기도 한다.

3) 제일 : 정월이나 이월 중에 어촌제장, 부녀회장, 간사 등이 날을 보고 정한다.

4) 제물 : 떡(돌래떡), 제주(굴감주), 과일(사과, 배, 귤), 재숙

5) 금기 : 부부관계, 문상, 돼지고기

6) 주관 : 어촌계

7) 제차

먼저 포구에 자리준비를 한 후에 북을 두 번 울리고 고씨집 매킨심방과 제관 3명이 당신을 모시러 조노케당으로 향한다. 조노케당에서 유식으로 제를 간단히 지내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온다. 제장에 도착한 후부터 제관은 천막안에 앉아 있고, 매킨심방이 무식으로 제를 지낸다.

Ⅲ. 공인종교

1. 보목교회

- 1) 명칭 : 대한 예수교 장로회 보목교회
- 2) 연혁 : 6.25 당시 260여명의 교인들이 보목리로 피난와서 처음엔 보목 국민학교에서 예배를 보다가 1951년 초가틀 얻어 예배당을 세우고 1976년 지금의 장소로 옮겨 교인들의 헌금으로 신축했다. 그후 1988, 1990년에 증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3) 시설 : 예배당, 교육관, 식당, 사택, 목사관, 운행버스 등을 갖추고 있다.
- 4) 신도
 - 아동부 100명, 중고등부 70~80명, 청장년부 150명
 - 성비율 남 : 여 = 1 : 2
 - 교인의 다수가 보목리 마을 주민들 (80%)
- 5) 전도 : 처음에 문맹퇴치운동을 벌여 글자를 가르치고 그 후에도 보목구락부 운영, 보목신용협동조합 창설 등 많은 일을 해서 주민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특히, 마을노인회와 많은 협조가 있어서 신년하례식 때는 교회목사를 모셔다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2. 해관정사

- 1) 명칭 : 해관정사
- 2) 종파 : 법화종
- 3) 위치 : 보목리 동동네 상류언덕
- 4) 연혁 : 1960년 해관스님에 의해 건립
- 5) 신도 : 서귀포, 보목리, 하례, 위미 등지에서 신자들이 모여들어 그 수가 150명에 이른다.

3. 원광사

- 1) 명칭 : 대한불교 선종회 원광사

信 仰

태양이 천하를 비추듯 부처님 공덕이 세계를 비취 달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2) 종파 : 선교종

3) 연혁 : 1957년에 증선 오순삼 스님이 건립하고 1957년 증축해서 오늘에 이른다.

4) 신도

— 보목리, 서귀포, 하효 등 주변 마을 주민 200명 정도를 헤아린다.

— 노인보다 중년층(30~50)이 다수를 차지한다

— 신도들의 이동이 많아, 변동없는 신도는 50명 정도이다.

5) 행사 : 음력 정월보름(상원절), 4월8일(부처님 오신날), 7월7일(칠석불공), 12월(동지불공)

IV. 맺 음 말

이상으로 보목리 신앙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았다. 요약해 보면, 민간신앙으로 정포제와 수신제가 매년 치러지며 조노계당 제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대히 치러진다. 공인종교로 기독교와 불교가 있으며 기독교가 불교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듯 보인다.

민간신앙의 세가 상당히 강한 편인데도 문화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포제의 경우 제관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쇠퇴의 길로 들어서리라 여겨진다. 민간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시급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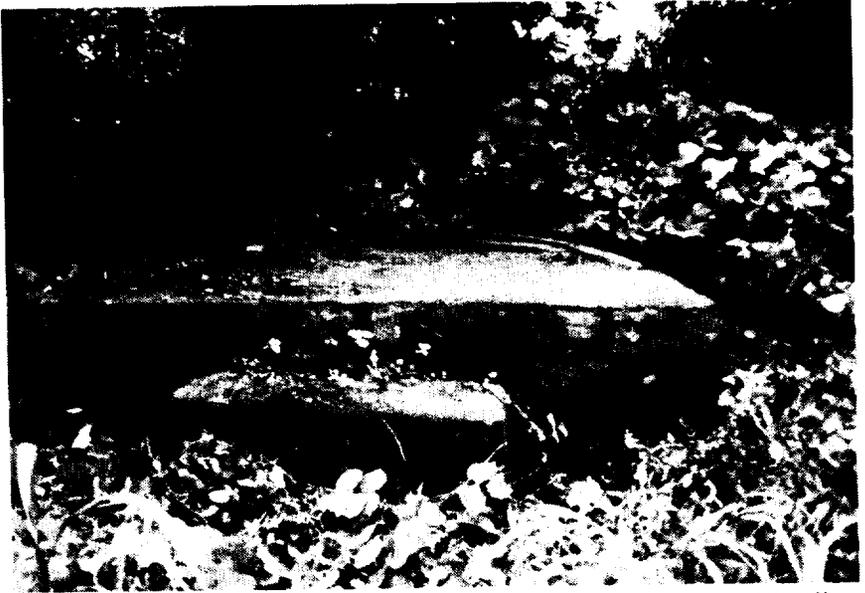
재 보 자

정포제 : 양익선(71), 조노계당 : 김난생(64)

요드랫당, 신남밀할망당 : 한진생(76), 이연화(78)

수신제 : 김성숙(57), 보목교회 : 안찬수목사님(50)

혜관경사 : 혜관스님(75), 원광사 : 오순삼스님(69)



〈포제단〉



〈신남밀할망당〉